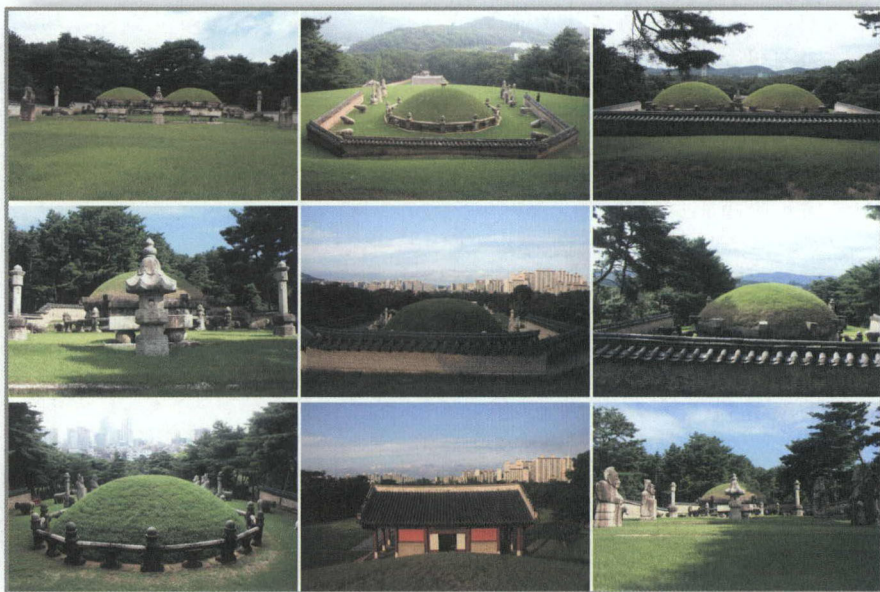


1. 왕릉
서울특별시



정릉(貞陵)

1. 연혁

능 주 : 태조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1396)

위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2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8호

봉릉연대 : 1397년(태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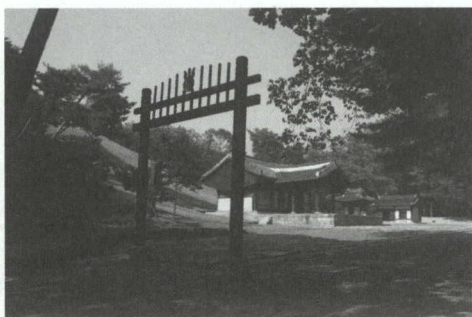
전릉연대 : 1409년(태종 9)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국민대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정릉2동사무소 뒷쪽에 있는 중앙하이츠빌아파트를 바라보고 올라가면 정릉에 다다를 수 있다. 정릉입구까지는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릉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두번째 부인인 신덕왕후(?~1396) 강씨의 무



정릉 전경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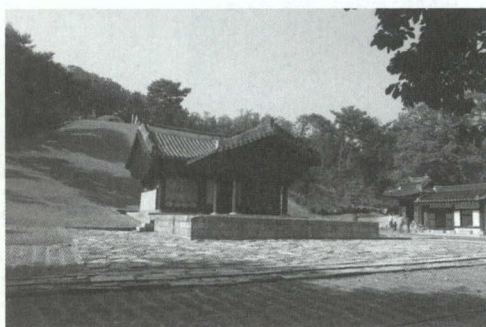
원래의 자리는 정동에 있었으나 태종 5년(1405) 의정부에서 왕의 무덤이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정릉만이 도성 안에 있고, 무덤이 크고 넓다는 논란이 있어서 도성 밖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이것은 태조가 여덟 번째 왕자인

방석을 세자로 정한 것에 대한 방원(후에 태종)의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태종은 무덤을 옮긴 후 정자각을 없애고, 홍수에 의해 없어진 광통교를 다시 짓는데 정릉의 십이지신상 등 석물을 실어다 만들게 하였다. 무덤을 옮긴 지 수백년간 정릉은 왕후의 무덤이라기 보다는 주인없는 무덤에 불과하였는데, 현종 10년(1669)에 송시열의 상소에 의해 왕후의 무덤을 보호하였다.

정릉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고, 호석과 양석이 각 1쌍으로 줄어들고, 무인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왕후의 무덤에 비하여 빈약하지만 조선왕조 최초로 만들어진 왕비의 무덤이다.

조선왕릉의 무덤 제도는 고려왕릉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 변화시켜 만든 것이다. 정릉의 사각명등석이 고려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무덤인 현재 정릉의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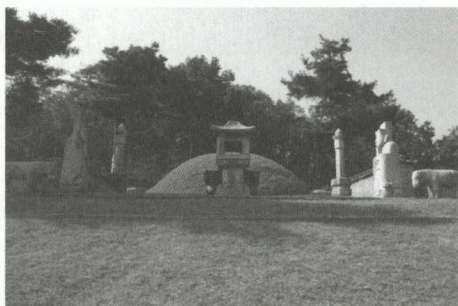


정릉 참도와 정자각

보면, 조선왕릉은 고려왕릉을 규범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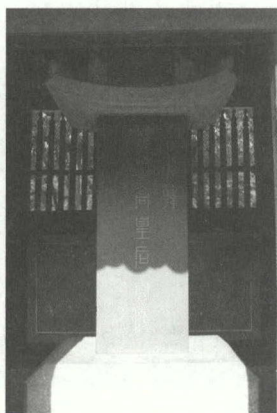
3. 능주 소개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는 본관이 곡산(谷山)으로 판삼사(判三司事)로서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에 추증(追贈)된 강윤성(康允成)의 딸로 태어났다. 출생연대는 알 수 없고 6월 14일 탄생하였으며 친가는 고려조(高麗朝)의 권문세가(權門勢家)였다. 태조(太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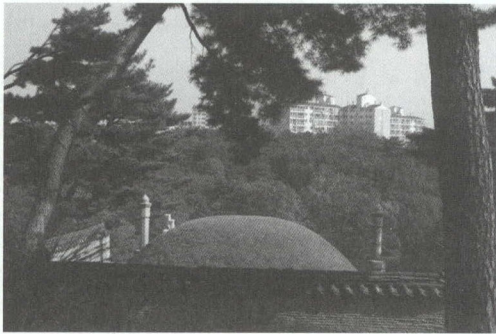
정릉 근경

는 고려시대의 풍습(風習)에 따라 향리(鄉里)와 개경(開京)에 향처(鄉妻)와 경처(京妻)를 각각 두었는데 강씨(康氏)가 경처(京妻)였다. 향처(鄉妻) 신



정릉 비석

의고황후(神懿高皇后) 한씨(韓氏)는 태조(太祖)가 등극(登極)하기 전인 고려 공양왕(恭讓王) 3년(1391) 9월 23일 이미 서거(逝去)하였으며, 강씨(康氏)는 태조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원년(1392) 8월 7일 현비(顯妃)로 책봉(冊封)되었다. 현비는 조선조 최초의 왕비였고 태조(太祖) 5년(1396) 8월 13일 병환(病患)으로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이득분(李得芬)의 사제(私第)에서 승하하였으며 소생은 방번(芳蕃), 방석(芳碩), 경순공주(慶順公主)의 2남 1



뒤에서 바라본 정릉

녀이고 춘추(春秋)는 전하지 않는다.

이 해 9월 28일 현비의 존호(尊號)를 신덕왕후(神德王后)로 하고 능호(陵號)를 정릉(貞陵)으로 하였다. 이듬해인 태조 6년(1397) 1월 3일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황화방(皇華坊)

(현 서울 중구 정동에 예장(禮葬)하였으며 태조의 뜻에 따라 정릉(貞陵)을 풍후(豐厚)히 조영(造營)하였다 한다.

강비(康妃) 소생(所生) 방번(芳蕃)과 왕세자(王世子)로 책봉(冊封)되었던 방석(芳碩)은 태조(太祖) 7년(1398) 8월 왕위계승(王位繼承) 다툼인 왕자(王子)의 난(亂)으로 직사(罪死)되었으며, 태조는 이 해 9월 5일 제2자 방과(芳果) 정종(定宗)에게 선양(禪讓)하고 상왕위(上王位)에 있었고 정종(定宗) 2년(1400) 11월 11일 정종(定宗)이 왕위(王位)를 태종(太宗)에게 양위(讓位)하였다. 태종(太宗) 5년(1405)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왕(帝王)의 능묘(陵墓)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정릉만이 도성 안에 있고 능역이 광대(廣大)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사신이 묵는 관사(館舍)에 가까우니 도성 밖으로 천장(遷葬)하여야 한다는 상언(上言)이 잇따름에 태조 승하 후인 태종(太宗) 9년(1409) 2월 23일 도성 밖 양주(楊州) 남(南) 사을한록(沙乙閑麓) 경좌갑향(庚坐甲向; 서에서 동향)에 천장(遷葬)하고 구릉(舊陵)의 목재(木材)와 석재(石材) 일부는 태평관(太平館)에 쓰고 태종(太宗) 10년(1410) 홍수(洪水)에 유실(流失)된 광통교(廣通橋) 복구(復舊)에 썼다.

정릉(貞陵)은 종묘(宗廟)에 부묘되지 아니하여 봉번(奉蕃)이 없었지 오래

되어 후릉(后陵)이 아닌 민묘(民墓)나 다름이 없는 형편이었고, 능의 존재마저 잊혀졌으나 200여 년이 지난 선조대(宣祖代)에 이르러 왕후(王后)의 친정 후손이 국묘태사자(國墓泰祀者)로서 군역면제(軍役免除)를 선조(先祖) 가전(駕前)에 호소함에 정릉(貞陵)을 수탐(搜探)하였으나 능침(陵寢)을 찾지 못하던 중 변계량(卞季良)의 이장축문(移葬祝文)으로 찾았다고 전한다. 그후로도 한식절(寒食節)에만 봉사(奉祀)하는 등 박대(薄待)가 여전하였으나 현종대(顯宗代)에 이르러 송시열(宋時烈) 등의 상소(上疏)에 따라 현종(顯宗) 10년(1669) 9월 29일 정릉(貞陵)이 회복(回復)되고 현비(顯妃)의 태묘배향(太廟配享)이 이루어지고 의례(儀禮)에 의한 상설(象設)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정릉(貞陵)은 병풍석(屏風石)과 난간석(欄干石)을 세우지 아니하였다. 능전(陵前)의 상석(床石) 1좌(座)와 그 양측(兩側)의 망주석(望柱石)이 1쌍이고 능침(陵寢) 주위로 양석(羊石)과 호석(虎石) 각 1쌍이 배치(配置)되었으며 그 밖으로 3면의 곡장(曲牆)으로서 제1계(第1階)를 이루고 있다. 제2계(第2階)에는 문인석(文人石) 1쌍과 마석(馬石) 1쌍이 서로 마주보고 배치되었으며 중앙에 사각옥개형(四角屋蓋石) 명등석(明燈石) 1좌(座)가 있고 제3계(第3階)는 없다. 상설(象設) 내용으로 볼 때에 상석(床石)을 받치고 있는 고석(鼓石)과 명등석(明燈石)은 구릉(舊陵)의 것을 이설(移設)한 것이며 현종(顯宗) 10년(1669) 정릉(貞陵) 회복시(回復時) 상설의물(像設儀物)을 설치함에 있어 병풍석(屏風石)과 난간석(欄干石)을 세우지 아니하고 호석(虎石), 양석(羊石)은 각 1쌍으로 반감(半減)하고 제3계(第3階) 무인석(武人石) 또한 세우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비릉(妃陵)에 비하여 빈약하다.

정릉(貞陵)은 조선건국(朝鮮建國) 후 최초(最初)로 설릉(設陵)되었으며, 조선왕릉(朝鮮王陵)의 능제(陵制) 상설(象設)이 고려왕릉제(高麗王陵制)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를 변화 수용하였던 것이므로 구(舊) 정릉(貞陵)의 실재

(實在)를 현재로서 상고할 길이 없다 하겠으나 정릉(貞陵)의 사각명등석(四角明燈石)이 여말(麗末) 공민왕(恭愍王)과 노국공주(魯國公主)의 현(玄)·정릉(正陵)의 명등석(明燈石)을 충실(充實)히 따르고 있음을 보아 조선왕릉(朝鮮王陵)이 고려왕릉(高麗王陵)을 규범(規範)으로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능원(陵原) 아래에 정자각(丁字閣)이 있으며 정자각 북측에 비각(碑閣)이 있고, 비면(碑面)에는 전서(篆書)로 대한신덕고황후정릉(大韓神德高皇后貞陵)이라 쓰고 음기(陰記)가 있으며,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어필(御筆)로서 광무(光武) 4년(1900)에 세운 것이다. 홍살문(紅箭門)은 정자각(丁字閣) 동측에 있다. 재실(齋室)은 1970년대 초에 노후 멸실되었다. 구(舊) 재실지(齋室址)의 북측에 있는 한식 건물은 정릉관리사무실용(貞陵管理事務室用)으로 건립된 것이다.

태조는 신덕왕후를 극진히 사랑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이 처음 만나 사랑을 싹틔우게 된 계기에 대한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어느 날,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매우 말라 우물을 찾았다고 한다. 마침 우물가에 있던 아리따운 그 고을의 처자에게 물을 청하였는데, 그녀는 바가지에 물을 뜨더니 버들잎 한 움큼을 띄워 그에게 건네주었다. 태조가 버들잎을 띄운 이유를 묻자 뒷날의 신덕왕후가 된 그 처녀는 “갈증이 심하여 급히 물을 마시다 चे하지나 앓을까 염려되어 그러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 대답을 들은 이성계는 그녀의 가룩한 마음 씬씀이에 반하여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4. 정릉표석음기

朝鮮國

神德王后貞陵

順元顯敬神德王后康氏 太祖大王繼妃 六月十四日誕生 洪武二十五年
壬申冊封顯妃 丙子八月十三日昇遐 丁丑正月葬于漢城皇華坊 永樂七年
己丑二月二十三日移葬于楊州南沙河里庚坐之原 顯宗己酉追祔太廟

大韓

神德高皇后貞陵

順元顯敬神德高皇后康氏 太祖高皇帝繼后 六月十四日誕生 壬申開國
冊封顯妃 丙子八月十三日昇遐 丁丑正月葬于漢城皇華坊 太宗己丑二月
二十三日移葬于楊州南沙河里庚坐之原 顯宗己酉追祔太廟 追上徽號順元
顯敬 光武三年己亥十一月追尊恭上高皇后 書前面與陰記庸仲小子之微忱
焉 光武四年 月 日

5. 정릉의 폐복

《燃藜室記述》卷1, 太祖朝故事本末 정릉의 폐복

홍무(洪武) 병자년(1396) 8월에 현비 강씨(顯妃康氏)가 죽었다. 문하 시중
조준과 김사형 등이 아뢰어, 공신 한 사람을 시켜 능을 3년간 지키게 하기를
정하니, 안평군(安平君) 이서(李舒)로 하여금 능을 지키게 하였다. 처음에 정
릉동(貞陵洞)에 장사지냈다가 뒤에 사을한리(沙乙閑里)에 옮겼다. 《야언별

집(野言別集)》

○ 정축년(1397) 정월 갑인일에 황화방(皇華坊) 북쪽 언덕에 장사지내고 또 능의 동쪽에 흥천사(興天寺)를 창건하여 명복을 빌었다.

절의 건축 공사가 끝나고 소상(小祥)이 되자 법채(法彩)를 성대히 베풀어서 낙성식을 하고, 권근에게 명하여 기문(記文)을 짓게 하였다. 《흥천사기(興天寺記)》

○ 정릉을 장사지낸 지 3년만에 경복궁(景福宮) 인안전(仁安殿)에 혼백을 반환하고, 3년이 지난 뒤에 인안전에 영정(影幀)을 봉안했다.

○ 태종 기축년(1409) 태조가 승하한 이듬해 에 정릉을 양주군(楊州郡) 남사아리(南沙阿里)로 옮겼다.

정릉을 남사아리에 이장함을 고하는 제문(祭文)에 말하기를, “유명(幽明)의 관계가 이치는 비록 하나이지만 나뉘는 다르도다. 신도(神道)는 청정(淸淨)함이 좋다는 옛말씀이 어찌 거짓이라. 고금을 통해 상고해 보건대, 나라의 도성에 무덤 둔 일 없도다. 예관(禮官)이 이런 뜻으로 말을 올리매, 대소신료가 이에 찬동하여 길한 땅을 택하였으니, 성 밖 동북 모퉁이로다. 물은 졸졸 흘러서 일렁거리고, 산은 뻗어 내려 서로 얹혔도다. 현택(玄宅 무덤)을 두는 곳으로 여기가 마땅한데, 누가 이곳을 도성에 가깝다 하리요. 좋은 날 택하여 이안(移安)을 고하오며 술 한 잔을 올립니다. 숙령(淑靈)이 밝히 흥향하시기를 바라며 슬픈 정성 퍼면서 올먹입니다.” 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이 지음

○ 선조 신사년(1581) 11월에 신덕왕후를 복위하자는 의논이 비로소 일어났다. 과거에 신덕왕후가 태조를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태조의 정비(正妃)가 되어 명 나라의 고명(誥命)을 받았으며 돌아간 후에 시호를 주고 능을 봉하기를 신의왕후와 조금도 차이가 없이 하였었다. 그러나 태조가 승하하

자, 다만 신의왕후만을 같이 모시고, 신덕왕후에 대해서는 일체의 전례(典禮)를 다 폐해버리고 거행하지 않았다. 세월이 오래 되자 능 또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지가 2백년이 되었다.

이때에 와서 덕원(德源)에 사는 강순일(康純一)이 임금이 행차하는 수레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며 아뢰기를, “저는 판삼사사 강윤성(康允成)의 후손입니다. 지금 군역(軍役)에 배정되어 있으니, 국묘(國墓)를 봉사(奉祀)하는 사람들은 군역을 면하는 전례에 의하여 개정해 주소서.” 하였다. 강윤성은 신덕왕후의 아버지이다. 태조의 사조(四祖)의 후비(后妃 고조모·증조모·조모·모)들의 부모의 묘가 북방에 있었는데, 관에서 한 사람씩 정해 ‘국묘봉사자(國墓奉祀者)’라 하여 군역을 면제해 준 전례가 있는 까닭에 순일이 이렇게 하소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이(李珥)가 앞장서 말하기를, “신덕왕후는 태조와 같이 모셔야 할 분인데, 아무 까닭없이 제사하지 않는 것은 인륜에 관계되는 일이니, 마땅히 존송하는 행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니, 조정이 모두 의논하여 비로소 예관을 시켜 먼저 능을 찾게 하였다. 문관 이창(李昌)이 신덕왕후의 외손으로 마침 조정에 벼슬하고 있었으므로, 예조에서 그를 데리고 능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 아차산(峨嵋山) 안팎을 두루 답사하였으나 내내 찾지 못하였다. 그때 마침 변계량(卞季良)의 《춘정집(春亭集)》 가운데 정릉을 이장한 축문에 ‘국도 동북’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근거로 물색하여 산 밑 마을에 가서 찾으니, 과연 국장(國葬)으로 한 능이 산골짜 사이에 퇴폐되어 있었다. 조정의 의논이 처음에는 태묘(太廟)에 같이 모시기를 신의왕후의 예(例)와 꼭 같이 하기를 청하더니, 다른 한 의논이, 예경(禮經)에 제후는 두 번 장가들지 못하고 예(禮)에 두 적처(嫡妻)가 없다는 말들을 인용하여 이러니 저러니 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조정의 의논이 또 하책(下策)

을 내어 다만 정자각(丁字閣)을 세우고 참봉을 설치하는 것만 여러 능의 제도와 꼭 같이 할 것을 청했으나 이 의논 또한 시행되지 못하고, 다만 조묘(祧廟)의 예에 의하여 매년 한식날에만 제사지내는데 그치기로 하였다. 《유천차기(柳川筭記)》》

신의왕후와 신덕왕후는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 서울과 지방에 있던 두 아내이다. 신의왕후가 죽은 뒤에 신덕왕후가 계실(繼室)이 되었으니, 이것은 정충(鄭攄)의 <정릉비문서(定陵碑文序)>를 상고해 보면 알 수 있고, 신덕왕후의 칭호를 역대로 내려오면서 깎은 적이 없는 것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보아도 또한 알 수 있다. 조선의 가법(家法)이 이미 정식이 있어서, 여러 왕의 후비는 전처와 후처를 차별하지 않고 배위(配位)로 모셨으니, 제후에게 두 적처가 없다는 말을 태조에 대해서만 편벽되게 고집할 것이 아닌데,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굳이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신덕왕후에 대해서만 깎아 내리고자 했으니,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강순일이 처음에 하소연한 것은 다만 자기의 군역을 면하고자 한 것이나, 선비들의 의논이 분발한 것은 이것 때문이었으니, 천도(天道)는 돌아오고야 마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가만히 돕는 큰 기회인 것 같은데, 의논이 일어났다가 도로 그치고 3년을 다투다가 겨우 한식날에 한 번 제사지내는 것만 행하게 되었으니, 애석하다. 《유천차기》》

○ 임오년 6월에 7대손 돈녕부 직장(直長) 이의건(李義健)이 정릉에 사유를 고하는 제문에 말하기를, “건(乾)을 짝하여 국운을 일으키고 위(位)를 바르게 하여 곤도(坤道)로써 건을 받들었다. 살아서는 국모되어 안팎에 임하였고, 돌아가서는 아름다운 칭호를 받게 되었다. 전례에 몇몇함이 있어 원릉(園陵)에 제사지냈더니, 시세가 달라져서 의논하는 신하들의 소견이 잘못되었다. 등급이나 품위가 문란하게 되어 부실(副室)로 깎아내리고 지키는 사

람이 없어 능원이 황폐해지니, 향화(香火)를 누구에게 의지할거나, 백성이 나 종들에게도 수치스럽다. 오래도록 그릇된 대로 그냥 2백년을 내려왔으니, 혈기있는 이치고 누구인들 울분을 쌓지 않으리. 일은 시기를 기다리는 법인데 마침 오늘이 그때이다. 신하와 서민들이 다 같이 여러 해를 두고 하소연하기를 마치 바다 새가 돌을 물어다가 바다를 메우듯이 하였더니, 임금의 생각이 비로소 돌이켜졌다. 폐했던 전례를 닦아 거행함이 천년에 이 한 때이다. 한 무덤 거친 능에 돌만이 여기저기 서 있고, 높은 대는 흙 속에 묻혔으며 신계(神階)는 우거진 풀 속에 숨어있으니, 산짐승이 깃들고 나무꾼과 목동들이 길을 이루었도다. 이어받들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았으나 조정에서 능을 찾는데 믿을 만한 봉지(封誌)가 없다. 국사(國史)에도 시일이 오래 되어 기재된 문적이 없어졌고, 향간의 속설은 황당하여 믿을 수 없으니,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지석(誌石)을 파 보아야 여러 사람의 의심이 풀릴 것이다. 능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예로써 마땅히 제사드려야 할 텐데,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의식(儀式)이 아직 베풀어지지 않았고 시일도 좋지 못하므로 유사를 시키지 않고 이에 자손에게 명해서 이 좋은 날을 택하여 산소에 와서 사유를 고합니다.” 하였다. [봉상시 첨정 이장(李昌)이 지었다. 《정릉사적(貞陵事蹟)》]

○ 위안하는 제사의 제문에 말하기를, “이 원릉(園陵)은 선후(先後 신덕왕후)의 유택(幽宅)이네. 떠도는 말에 다른 산록으로 옮겨갔다고들 하니, 비록 근거없는 말이기는 하나 조정에서는 의심을 풀기 어려워 이에 예관에게 명하여 유석을 파헤치니, 비록 표지(表誌)는 없을지라도 틀림없는 참능이네. 쌓인 울분을 푸는 것이 천년에 이 한 때이네. 역군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현궁(玄宮)을 놀라게 할까 두려웠네. 하루도 못되어 성분하는 일을 마쳤네.” 하였다. 《정릉사적》

○ 예조 판서 김첨경(金添慶)이 대군종가인(大君宗家人)의 말을 듣고 아뢰기를, “유학(幼學) 이성장(李成章)이 이러 이리하다고 말하기를, ‘전일에 낭청(郎廳)이 능을 봉심할 적에, 일이 뜻밖이어서 비록 선대의 일이지는 하나 후인으로서 문견이 넓지 못하여 상세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들으니 공순군 부인(恭順君夫人) 왕씨(王氏)는 정통(正統) 기사년(1449)에 73세로 죽었는데, 동대문 밖 광평대군(廣平大君) 집에 있으면서 간혹 가마를 타고 가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이는 우리 조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천군 부인(南川君夫人) 최씨(崔氏)는 가정(嘉靖) 기축년(1529)에 죽었는데, 생시에 매년 속절(俗節)이면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이것을 현재 살아 있는 늙은 종 가운데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합니다.” 하였다.

○ 의정부가 아뢰기를, “정릉을 봉식하는 일은 삼사가 이미 의논을 다 했으니 상께서 모두 들어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첫째 봉식하는 일 이외에 다시 더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과 둘째 선왕이 제정해 놓은 것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씀은 신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침우(寢宇)를 세우지 않으면 영령을 편안하게 할 곳이 없고, 재궁(齋宮)을 두지 않으면 능을 받들 사람이 없으니, 한갓 봉식했다는 말만 있고 박하게 대우하는 것을 면치 못하므로, 신 등이 매일 조정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다시 아뢰기를, “정릉에 대한 일로 온 나라가 논쟁을 하여 1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봉식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참봉을 설치하고 각(閣)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 순릉(純陵)과 숙릉(淑陵)은 비록 똑같이 후비(后妃)의 능이지는 하나 그것은 추숭(追崇)하는 예에 있어서 마땅히 생전에 국모 노릇하던 이보다 좀 못해야 하므로, 능침(陵寢)의 제도를 부득불 감손시킨 것인데, 해당 관원들이 정릉에 대하여서도 각각 이 두 능을 들어서 증거를 삼고 있으니, 무슨 소견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정릉을 깎아내려

대우를 박하게 하는 것을 미안하다고 하면서 영(靈) 모실 곳을 없게 하고 능 받들 사람도 없게 한다면 이것은 비록 봉식하였다는 말은 있다 하더라도 그 깎아내려 박하게 하는 뜻이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 임오년(1581) 12월에 태학생(太學生) 채증광(蔡增光) 등이 올린 소의 대략에 말하기를, “다행히도 하늘이 한 어리석은 백성(강운성의 후손)의 마음을 유도하여 선후(先後 신덕왕후)를 위하여 원통함을 하소연하게 하였으니, 일국의 신민이 누가 태조와 태종을 위하여 신덕왕후를 부향(祔享)하는 중례(重禮)를 바르게 하여 모후(母后)의 유원(幽冤)을 씻고자 아니 하겠습니까. 윤기(倫紀)가 무너지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의례가 거행되지 못하는 것을 민망하게 여겨 조정에서는 공론이 분발하고 초야에서도 민심이 억울하게 여기니, 이것이 어찌 한갓 신덕왕후만을 위하여 나온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신덕왕후를 폐위한 것)이 선조(先朝)에 있었으며, 후손이 마땅히 고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못 그렇지 않습니다. 태종이 신덕왕후에 대하여 지성으로 봉양하여, 살아 있었을 때 섬기는 예를 다하였고, 원릉(園陵)을 공경히 받들어 돌아간 뒤에 섬기는 예를 다하였으며 시호를 ‘신덕’이라 하고 능호를 ‘정릉’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신의왕후를 존봉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에 태묘에 승부(陞祔)하지 않은 것은, 신들이 비록 전말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삼가 듣건대, 고려 때의 임금도 비록 두 왕후가 있더라도 한 왕후만을 승부하였다고 하니, 태조와 태종이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되어 전대의 제도를 감히 뜯어 고치지 못한 까닭에, 신의왕후만을 태묘에 승부한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환조(桓祖) 역시 세 번 장가들었으며, 의혜후(懿惠后)만을 승부하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태조가 승하하신 때가 태종이 즉위한 8년에 있었으니, 왕후를 승부하는 예를 행한 것은 마땅

히 태종 10년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관이 신덕왕후를 박하게 대우하자는 의논이 바로 이해에 있었을 것이니, 그때 한두 신하들이 학문이 부족하여 망령되어 잘못된 의견을 고집하여 신덕왕후를 태묘에 승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향과 죽은 태종이 친히 전하는 것인데 예관이 정지하자고 청하고, 능침은 태종이 존봉하는 것인데, 예관이 폐하자고 청하였던 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덕왕후를 승부하지 않은 것은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면, 필시 몇몇 신하들의 죄일 것입니다. 태종이 신덕왕후를 깎아 내리고 박하게 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아름다운 시호를 그냥 두어 후세에 전했겠습니까. 한 때 몇몇 신하들이 박하게 하자고 한 의논이 태종에게 무슨 관계가 되기에, 전하께서 양사에 답하여 이르기를, ‘성인(태종)의 효성으로 저와 같이 처리하였으니 반드시 거기에는 당연한 이치가 있을 것이다’ 하십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그것을 홀로 태종의 허물이라고 여기십니까. 또 이 일이 혹 아직까지 발설이 되지 않았다면 후일에 그래도 여망이 있는 일이나, 다행히도 이제 성명(聖明)한 전하를 만나 이미 공론이 격발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바른 대로 귀일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당시 몇몇 신하들의 과실이 태종의 과실이 되고, 전하의 과실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 그 다음 날 다시 소를 올리기를, “신들이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뢰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태조가 나라를 얻으실 때에 신덕왕후의 내조에 많이 힘입었고, 신덕왕후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조의 마음이 무궁한 수명을 함께 누리지 못한 것을 신덕을 위하여 애통해 하시면서도 오히려 돌아가신 뒤에 함께 태묘(太廟)에서 무궁한 제사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셨을 것인데, 어찌 후세의 박한 의논이 마침내 능을 폐하고 승부(陞祔)를 끊어버릴 줄을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태조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제후를 흠향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신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신덕왕후는 태조의 정배(正配)로서 일국의 국모가 되었다가 불행히도 먼저 돌아가셨는데 시호 정하기를 의례대로 하였습니다. ‘신덕’ 두 글자의 시호는 실로 정적(正嫡)에 대한 아름다운 이름이니, 어찌 ‘신의(神懿)’라는 시호에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신덕의 영은 맺힌 원한이 마침내 명명(冥冥)한 가운데 퍼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둘째 이유입니다. 태종은 태조와 신덕의 아들로써 태조와 신덕의 나라를 다스렸는데, 힘써 봉양하여 생전에 효도를 다했고, 진히 향과 축을 전하여 사후에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돌아가신 뒤에 부왕과 모후가 종묘에 같이 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태종의 영 또한 답답하고 송구하여 태묘에서 편안히 흠향할 수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신들이 그만두지 못하는 셋째 이유입니다.” 하였다.

○ 그 다음 날 세 번째로 소를 올리기를, “임금은 선조(先朝)의 잘못된 처사를 보고 고칠 계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니, ‘선대에서 한 일을 고치지 않아야 한다’는 작은 혐의를 고집하지 말아야 그 선조의 허물을 덮고 선조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드려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왕의 잘못된 처사가 실로 선왕의 본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끌어다가 조종이 한 과실이라고 하여, 이것을 고칠 수 없는 처지에 둘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중종(中宗)이 이런 이치를 미루어 소릉(昭陵)을 복위하는 일에 감히 선조를 핑계대지 않고 여러 신하들의 소청을 좇았으므로, 지금까지 백 사십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오기를 세조의 뜻을 크게 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이 정릉을 폐한 박한 처사는 실로 그 당시에 예를 의논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선왕(태종)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전하는

무엇을 혐의하여 듣지 않습니까. 신의왕후가 돌아가신 때가 고려말이니, 태조의 내사(內事)를 도운 이는 오직 신덕왕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덕왕후를 깎아 낮추어서 태조의 정배로 하지 않는다면 태조는 개국의 성조(聖祖)로서 홀로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정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조가 이미 높여서 정배로 삼았고, 태종이 또 높여서 모후로 삼았으니, 일국의 신민이 그 누가 우리 신덕왕후를 국모로 보지 않겠습니까. 신덕왕후를 이미 깎아서 부실(副室)의 자리로 내려서 끝내 왕비의 위에 이르지 못한 신의왕후보다 낮게 보면, 이것은 태조에게 정배가 없는 것이고, 태종에게 모후가 없는 것이니, 일국의 신민에게 모두 국모가 없는 것입니다.

슬프다! 없어지지 않는 것은 천리이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없고, 보존하기 어려운 것은 인심이기 때문에 한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법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조종이 부탁하고 신민이 촉망하는 중대한 것을 잊어버린 듯이 홀로 당신의 소견만을 고집하여 없어지지 않는 천리와 보존하기 어려운 인심을 거스리려고 하십니까.” 하였다.

○ 현종(顯宗) 10년 기유 정월에 우의정 송시열(宋時烈)이 아뢰기를, “신덕왕후 강씨(康氏)는 태조의 왕비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정릉에 장사지내고 국례(國禮)를 아직도 고려의 제도에 의하여 조석으로 절에서 재(齎)를 베풀었는데, 태조가 추념하기를 매우 간절히 하여 언제나 정릉에 재 올리는 종소리를 들은 뒤에 수라(水刺)를 들여오라고 하셨다니, 이것으로 태조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침이 매몰되어 제릉(齊陵 신의왕후의 능)에 미치지 못하고 또 종묘에 배향되지 못하였으니, 예에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역대 왕의 기일 중에 신덕의 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처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은 극히 황송한 일이나, 태

조가 개국하신 뒤에 정도전 등이 태종을 무함하고 신덕왕후의 아들을 세워
서 세자를 삼았다가 신덕왕후의 소생인 장혜(章惠)와 소도(昭悼) 두 공이 비
명에 죽고, 그 후 신덕왕후의 능소(陵所)를 성동(成洞)에 옮겼기 때문에 태묘
에 배향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신덕왕후는 다른 이
의 계비와는 같지 않다.” 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고려 때에는 경처(京
妻)와 외처(外妻)가 있었던 까닭에 태조가 잠저에 있을 때에 신덕왕후가 경
처가 되고 태조가 은혜와 예의를 다하였는데, 지금까지 태묘에 배향되지 못
한 것은 진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일이 중대하니 널리 조정의 신하들과 의논
하여 태묘에 배향하고 능을 개봉(改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현종
이 이르기를, “내가 천천히 다시 생각하여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
겠다.” 하였다.

○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아뢰기를, “신덕왕후의 능침에 대한 일은 신이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송 나라 때에 전씨(錢氏)의 능묘가 거칠어서 행인이
슬퍼하였는데, 송 나라에서 오히려 이를 위해서 묘를 수축하고 사당을 세워
주었습니다. 하물며 신덕왕후는 위와 시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능묘가 이
와 같이 매몰되었으니, 이것은 사체(事體)로 보아 불가불 속히 수축해야 합
니다.”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예관에게 말을 하여 봉심한 뒤에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참의(參議) 이준구(李俊壽)가 정릉을 봉심하니 봉
릉(封陵)은 둘레가 66척이고 높이가 7척쯤 되며, 사면의 사토가 거의 다 허
물어졌고 곡장(曲牆) 또한 다 퇴락하였습니다. 석물(石物)로는 혼유석(魂遊
石) · 장명등(長明燈) 각각 일좌(一坐)와 문석(文石) · 망주석(望柱石) · 양석
(羊石) · 호석(虎石) · 마석(馬石) 각각 한 쌍이 차례로 배열되고, 능은 40여
보에 둘로 사면을 쌓았고, 중앙에 모두 계단이 있습니다. 안의 시설은 한 칸

쫘 네모난 석축(石築)이 있는데, 매년 한식에 막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능 아래 백여 보쯤에 또 10여 칸의 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 완연하니, 이곳은 틀림없이 재소(齋所)의 옛터입니다.”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경석(李景奭), 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 영상(領相) 정태화(鄭太和), 좌상(左相)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재실(齋室)을 중건하여 수직(守直)하고 수호(守護)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현종이 명하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병조에서 아뢰기를, “정릉 수호군(貞陵守護軍)을 조천(祧遷)한 능의 예에 의하여 마땅히 30호(戶)로 정해 줄 일입니다.”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반은 보병으로 정해 주고, 반은 본릉으로부터 차차 정해 보라.” 하였다.

중건청 당상(重建廳堂上)은 이조 참판 윤집(尹鑠)과 예조 참판 이준구(李俊壽)로 삼았는데, 3월 13일에 비로소 착공하였다.

○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또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생각건대, 천하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대륜(大倫)을 밝히고 대법(大法)을 세우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른바 ‘대륜’이라는 것은 부자·군신·부부이고, 이른바 ‘대법’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이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밝지 못함이 있고 이 세 가지 사이에 행하는 것이 하나라도 미진함이 있으면 중국이 이적에 빠지고 인류가 금수로 되는 까닭에, 성인이 스스로 자기가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본조가 개국한 이래로 삼강이 바르고 오상이 밝아서 고려의 호속(胡俗)을 일변(一變)하고 당당하게 삼대의 대도에 오른 까닭에 중국에서 언제나 우리를 ‘소중화(小中華)’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개국초에 간신 정도전 등이 위태로운 말로 선동하고 간특한 꾀를 몰래 행하여, 태조대왕이 왕위를 헌 신작 같이 내던지게 하고 장혜

(章惠)와 소도(昭悼) 두 공을 요절하게 하였으니, 간신의 죄는 죽여도 남습니다. 오직 우리 태종의 성덕(盛德)과 순효(純孝)가 전의 사람들보다 마치 요임금이 전하고 순임금이 받은 것처럼 질서 정연하여 변고를 만나 처리하는 도리가 당시에 유감이 없었고, 후세에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덕왕후의 능에 대해서만 의절(儀節)이 부족하고 태묘에 배향하는 예가 오래 실행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당시 예관이 예의를 알지 못하고 망녕되게 잘못 해아려서 이와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어 그대로 답습하여 이력저력 해오다가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태묘에 비록 주현소월(朱絃疏越)의 음악을 연주하고 옥찬황류(玉瓚黃流)의 제주(祭酒)를 올린다 하더라도 태종의 영은 반드시 슬피 탄식하고 벌칙 성내실 것이고, 태종 또한 반드시 그 영이 좌우에 오르내릴 때 송구스러워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또, 일국의 신민들도 성자신손(聖子神孫 태종의 자손인 역대 국왕들)이 태종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지 못함을 의심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성상께서 지극한 효성으로 먼 조상을 추념해서 특별히 예관에게 명하여 정릉을 봉심하여 나무가 넘어져 능을 누르고 있는 것은 곧 제거하고, 수호하는 관원과 재사(齎舍)를 차례로 세웠으니, 어찌 다만 조종의 신령이 명명중(冥冥中)에서 기뻐하실 뿐이겠습니까. 온 천하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효성스런 성상을 우리러 뵙니다. 그러나 묘향(廟享)의 의절을 아직까지 지연시켜 결정하지 못하고 능묘의 예를 달리하여 저것[능]은 받들고, 이것[태묘에 모시는 것]은 폐하니, 근거가 없는 처사입니다. 신이 밤낮으로 근심하여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더니, 이제 선조조 태학생(太學生) 채증광(蔡增光)의 소장을 보니, 그때 조정에서는 신덕왕후의 문제에 대한 의논이 일제히 나와 그 말들이 매우 상세하고 절실하였습니다. 또 삼가 권근(權近)이 왕명에 의하여 지은 <정릉 흥천사 기문(貞陵興天寺記

文)>을 보니, 태조가 애통하게 생각하며 시호를 추증한 뜻과 명 태조가 칙서로 조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그 글을 상세히 살펴 보셔서 특별히 예관으로 하여금 묘향의 의절도 함께 의논하게 하소서.” 하였다.

○ 6월에 부학(副學) 이민적(李敏迪), 응교 남이성(南二星), 교리 윤심(尹深)·이규령(李奎齡)·부교리 김만균(金萬均), 수찬 홍주국(洪柱國), 부수찬 김만중(金萬重)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생각건대, 천하의 일이 본래 폐지되었다가 후에 거행되는 것이 있고, 또 일시에 급허도 후세에 영원히 떠는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 집의 신명규(申命圭), 사간 박증휘(朴增輝), 지평 신정(申晔), 임상원(任相元), 정언 어진익(魚震翼) 등이 아뢰었다.

○ 2품 이상이 빈청(賓廳)에 모여서 아뢰기를, “신덕왕후를 태묘에 승부(陞祔)하자는 청은 곧 온 나라 사람들의 공공연한 의논입니다. 삼사의 신하들은 전례를 들어 논쟁하고, 포의(布衣)의 선비들은 《예경(禮經)》에 의거하여 진술하니, 살았을 때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하였으면 죽어서 종묘에 제사하는 것이 천지의 떳떳한 법이고 고금에 통하는 의리인데다 종묘에 관계되는 일이니,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명하신 전하는 천리의 당연한 바와 인정이 있는 곳을 통촉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데, 이것을 어렵게 여겨 오늘에 이른 것은 아마도 관계된 바가 중대하여 경솔히 시행하기 어려워서가 아닌지요. 그러나 신들은 일이 이미 중대하다면 더욱 빨리 시행해야 되지, 결코 시일을 끌어 천리를 어기고 인정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하였다.

○ 25일에 진사 조상우(趙相愚) 등이 상소하였다.

○ 8월에 영상 정태화(鄭太和), 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가 백관을 거느

리고 정청(庭請)하고, 종실들도 정청하였으며, 봉교 조사석(趙師錫)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고, 감찰 한공필(韓公泌) 등과 성균관 및 사학의 유생들 또한 상소하여 이것을 의논했다.

○ 영종추부사 이경석(李景奭)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오늘날 논하는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떳떳한 일인데, 의리의 바른 것과 인륜의 중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아뢰었습니다. 어제 내리신 전하의 비답(批答)을 보았는데, 또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신중히 생각하는 것은 오래 된 일이어서 경솔히 고치기 어렵다고 여기셨기 때문이겠지만, 침각(寢閣)을 증진하는 것도 전대에 해 오지 않던 일이니, 어찌 태묘에 승부하는 의절만 어렵게 여기십니까. 또 일이 조종에 관계되어 지금 와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혐의가 된다고 여기셨기 때문이겠지만, 《실록(實錄)》을 보면 신덕왕후에 관한 처분이 당초에 태종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미진했던 전례(典禮)를 지금 와서 고친다고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본래 능제(陵制)와 묘의(廟儀)는 서로 다른 것이 없는 것인데, 당연히 차례로 거행할 전례를 아직 시비와 가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고 있으니, 이것은 또한 《주역》의 이른바, ‘건괘의 강단(剛斷)으로 께히 결단한다’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시 성대한 의례를 거행하여 신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현종이 이르기를, “내가 신중히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까지 미루어 온 것이나, 끝내 내 생각을 고집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경들의 청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나의 의견을 버리고 경들의 의견을 좇겠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예조에서 아뢰기를, “옥당에서 올린 차자에 ‘고신(故臣) 권근(權近)’이 지은 <흥천사(興天寺) 기문>을 상고해 보니, 「홍무(洪武) 병자 8월 무술에 우리 소군(小君) 강씨(康氏)가 홍하다」 하였는데, 실록에 의하면 「병자 팔월

조하루 무자삭[丙子八月初 一日戊子朔]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무술일은 11일에 해당됩니다.’ 하였습니다. 정릉의 기일(忌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더 상고해 볼 일입니다.” 하니, 윤택한다고 전교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11일을 기일로 삼았는데, 다시 《실록》 초본을 보니, 무자 밑에 ‘삭(朔)’ 자가 적혀 있지 않아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역산(歷算)하게 하니, 13일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대신에게 의논하여 이날을 기일로 삼았다.

예조에서 신덕왕후의 휘호인 순원(順元)·현경(顯敬)이라는 보전(寶篆)을 추상(追上)할 것을 아뢰었다.

○ 신덕왕후의 신주를 모실 장소를 의논하였는데, 좌찬성 송준길(宋浚吉)의 의논에 의해서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거기서 하였다. [《종묘전고(宗廟典故)》에 상세하다. ○ 시책(諡冊)을 추상하는 데 관한 수의와 승부할 때 정알(庭謁)하는 데 관한 수의도 함께 《종묘전고(宗廟典故)》에 들어 있다.]

○ 기유년(1669) 9월 29일에 강녕전(康寧殿)에 쳐 놓은 장전(帳殿)에서 제주(題主)하고 읍취당(挹翠堂)에 나아가 봉안하였다가, 30일에 종묘에 나아가서 10월 초하룻날에 종묘에 승부하고, 그 다음 날에 교서를 반포하고 과거를 보는데 경과와 합쳐서 하라고 하였다. 이상은 모두 《등록(謄錄)》이다.

○ 신덕왕후를 태묘에 승부할 때에 대신을 보내어 대행하게 하였는데, 그 죽문에 쓰기를, “삼가 생각건대, 대비는 열조(烈祖 태조)와 짝하여 명 나라 조정의 명을 받아 왕비의 자리에 오르셨다. 연대는 비록 오래 되었으나, 아름다운 칭호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승부하는 예를 거행하지 못한 지 몇 해가 지났는고. 소소(昭昭)하게 오르내리시는 영이 마치 강림하여 돌아보는 듯하니, 소자(小子) 송구스럽도다. 시월 초하루는 날과 때가 좋은 때여서 이에 상

등의 의식(儀式)을 정결히 하여 태묘에 승부하오니, 엄숙한 묘실(廟室)이며, 오른쪽은 목(穆)이고, 왼쪽은 소(昭)로다.

신이 양양(洋洋)히 강립하오니, 백세에 체천(遞遷)이 없으리로다. 소자가 병에 걸려 오랜 고질로 몸소 폐백을 드리지 못하오니, 다만 슬피 사모함이 더합니다. 정성을 모아 정결한 제물을 올리는데 재상으로 대행하게 하오니, 아, 심원한 황령(皇靈)이시여,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주(金錫胄)가 지어서 올리다.

○ 능을 봉하고 제사를 베풀던 날에 소낙비가 정릉 일대에 쏟아졌는데, 백성들은 신덕왕후의 원한을 씻는 비라고 하였다. 《현릉행장(顯陵行狀)》

여 백

헌릉(獻陵)

1. 연혁

능 주 : 태종(太宗)[1362~1422]

원비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1365~1420]

위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4호

봉릉연대 : 1422년(세종 4년)

전릉연대 :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송파대로를 따라 성남방면으로 가다가 복정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서초구 세곡동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현인릉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넓직한 주차장을 뒤로 하고 능역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순조의 무덤인 인릉이 나타나고, 여기서 오솔길을 따라 안으로 더 들어가면 태종의 무덤인 헌릉에



현릉 전경

도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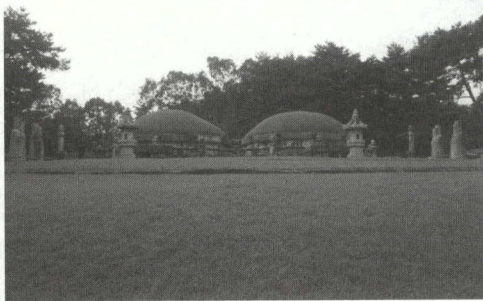
현릉은 3대 태종과 원비 원경 왕후의 봉릉이 같은 언덕에 조성된 쌍릉 형식으로, 조선시대 쌍릉의 대표적인 능제이다. 병풍석의 규모와 확트인 전경, 정자각 중심의 제향공간과 능침공간 사이의 높이 차이 등 초기 조

선 왕릉의 위엄성을 잘 드러내주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현릉의 능 앞 석물들은 망주석, 혼유석, 장명등은 1쌍이고 양석, 호석은 각각 4쌍, 문무인석과 마석은 각각 2쌍씩 배치되었는데, 이는 고려 왕조의 현릉(玄陵)과 정릉(正陵) 제도를 기본으로 한 것이며 조선시대에서는 가장 웅장한 배치 방법이다.

현릉이 지닌 조선 초기 왕릉으로서의 특성을 두 가지 꼽자면 소전대와 상석 아래 놓인 고석의 개수를 들 수 있다. 정자각 북서쪽에 있는 소전대라고 하는 석물은 제례의 마지막 절차인 지방을 불사르는 시설로 태조 건원릉과 이곳 현릉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시대 초기의 석물이다. 한편 봉릉 앞 상석 아래에 놓인 고석의 개수가 5개인데, 이와 같이 고석이 5개인 능은 태조의 건원릉, 태종의 현릉으로 모두 조선 초기 상설 제도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현릉에는 불교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법석은 물론, 원찰의 설립을 금하였다.



현릉 정자각



현릉 원경

원경왕후가 1420년(세종 2) 7월 10일 수강궁(창경궁) 별전에 서 태종보다 일찍 세상을 뜨자, 태종의 명으로 같은 해 9월 17일 대모산 기슭에 건좌손향으로 왕후의 능을 조영했는데, 억불정책으로 원찰을 세우지 못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422년(세종

4) 태종이 승하하자 아들 세종은 같은 해 9월 6일 어머니 원경왕후의 능 옆에 봉릉을 따로 만들어 아버지를 모시고 난간으로 연결하여 쌍릉을 조성하고 곡장을 둘렀다.

능원에는 두 개의 신도비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 손상된 원래 신도비와, 1695년(숙종 21) 하나 더 증설하여 세운 것이다. 왕릉의 신도비는 태조의 건원릉, 정종의 후릉, 태종의 현릉, 세종의 영릉 때까지 세웠다가 그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했는데, 현재 왕릉의 신도비는 건원릉과 현릉에만 볼 수 있으며 세종의 영릉 신도비는 서초구 내곡동 원래의 터에 묻혀 있던 것을 1973년에 발굴하여 현재의 청량리 흥릉동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입구에 있다.



뒤에서 바라본 현릉

3. 능주 소개

태종(太宗 ; 1367~1422, 재위기간 : 1400~1418)은 태조와 신의왕후 한씨의 다섯 번째 아들로 1367년(고려 공민왕 16) 5월 16일 함흥 귀주동 사저에서 태어났다. 1383년(고려 우왕 9)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사대언이 되었는데, 조선의 왕 중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왕이 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조선이 건국된 1392년 정안군에 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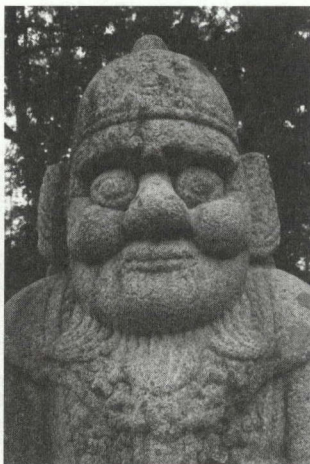


헌릉 장명등과 봉분(태종)



헌릉 장명등과 봉분(원경왕씨 민씨)

그러나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와 정도전 등의 경계로 세자 책봉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 소생의 세자 방석을 폐위시켰으며, 둘째 형인 영안군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양보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박포의 계략에 넘어간 태종의 넷째 형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태종은 이를 평정하고 1400년 11월, 정종에



현릉 무인석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1405년에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였고, 17년 10개월의 재위기간 동안 중앙제도와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다. 사병 폐지로 군사권을 장악하고, 전국의 인구를 파악하여 조세 징수와 군역 부과에 활용하는 호패법을 실시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조선 왕조의 기반을 닦는데 많은 치적을 남겼다.

1418년(태종 18)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아 2개월 뒤에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다가 1422년(세종 4) 5월 10일 연화방(창경궁) 신궁에서 56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를 도와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지만,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와 정도전 등과 대립하여 세자 책봉에서 탈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막내아들 방석이 세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더불어 정도전이 재상 중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왕자의 사병을 혁파하려 하자, 수세에 몰린 이방원은 결국 1398년(태조 7) 8월 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방원은 신의왕후 소생의 왕자들과 함께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 남은 등의 일파를 제거하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도 아울러 살해한다. 이 사건이 제1차 왕자의 난이다. 이 난을 통해 태조는 방원의 형인 영안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교지를 내렸고, 영안군은 곧 조선 제2대 임금 정종으로 즉위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신의왕후의 소생 사이에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불공평한 논공행상으로 이방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신 박포가 이방원의 넷

째 형 이방간으로 하여금 난을 일으키도록 부추겼다. 이로 인해 이방간과 이방원은 개경 시가지에서 무력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이방원이 승리하고, 박포는 사형에 처했으며, 이방간은 유배됨으로써 진정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지위가 더욱 확고해진 이방원은 그해 2월 세자로 책봉되고, 11월에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 3대 임금 태종이 되었다.

한편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1365~1420)는 1365년(고려 공민왕 14) 7월 1일 여흥부원군 민제의 딸로 태어났다. 1382년(고려 우왕 8) 이방원과 혼인하고, 조선이 개국된 후에는 정녕옹주에 봉해졌다. 1400년 이방원이 세자에 책봉되는 동시에 정비에 봉해졌으며, 같은 해 왕위에 오르자 정비에 진봉되었다.

원경왕후 민씨는 태종보다 두 살이 많았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들을 동원하여 1차 왕자의 난에서 태종이 승리할 수 있는 계락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겼다. 결국 태종은 원경왕후의 도움으로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태종이 즉위한 후에는 불화가 그치지 않았다. 태종이 권력의 분산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 친족배척의 정책을 쓰는 한편 후궁을 늘려나갔는데, 원경왕후는 이에 크게 질투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심기가 불편해진 태종은 자신의 왕위 등극에 공을 세운 원경왕후의 형제 민무구, 민무질 형제와 민무휼, 민무회 형제를 유배 보내고 자결하도록 했다.

진정에 이러한 불화가 계속 되고, 엇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 성녕대군이 14세의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자 원경왕후 민씨는 묘앞에 대자암을 지어놓고 그의 명복을 비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다가 1420년(세종 2) 7월 10일 수강궁 별전에서 춘추 56세로 승하하였다.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이 정도전 등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득세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경왕후 민씨의 도움이 컸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열흘 전, 정도전 일파는 왕자들이 거느리고 있던 사병을 혁파하였다. 이 때 사병을 거느린 왕족과 귀족들은 병사 뿐만 아니라 지니고 있던 무기며 군장 비를 모두 내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얼마간의 사병과 무기를 친정집에 숨겨두었다.

1398년 8월 26일, 당시 태조의 병환이 깊어서, 왕자들은 근정전 문 밖 서쪽 행랑에 모여 숙직을 하고 있었다. 원경왕후는 집사를 보내 자신이 갑자기 복통이 심하다는 핑계를 들어 이방원을 불러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친형제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숨겨둔 사병과 무기를 풀어 이방원에게 내주었다.

이로 인해 1차 왕자의 난은 성공하였고, 이방원은 왕위 계승을 위한 수순을 한 차례 밟게 되었다.

4. 현릉신도비

卞季良, 《春亭先生文集》 卷12, 碑誌 有明贈諡恭定朝鮮國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獻陵神道碑銘

天之將降大任於有德也 必生聖子神孫 以開景運 以永洪祚 我朝鮮太祖康獻大王之興也 以我太宗爲子 以我殿下爲孫 噫戲盛矣 豈人爲之所能及哉 天也 其與商家賢聖君之繼作 周家太王王季文武之相承 何以異哉 臣謹按璿源 李氏 全之望姓 司空諱翰 仕新羅 娶宗姓之女 六世而至諱兢休 始仕高麗 十三世而至皇玄祖穆王 入仕元朝而長千夫 四世襲爵 咸能濟美

元政既衰 皇祖桓王 還事高麗恭愍王 積功累仁 其來久矣 我神懿王太后以至正丁未五月辛卯 誕太宗于咸興府厚州私第 我太祖之第五子 生而神異 稍長 英睿絕倫 好讀書 學日進 年未冠 中高麗科第 時政散民離 國勢扞捏 慨然有濟世之志 太祖愛之異諸子 嘗以書狀官 偕侍中李穡朝京師 累官至密直司代言 洪武辛未九月 神懿王太后薨 廬于齊陵之側 欲終三年 壬申春 太祖西行 遘疾而還 來侍湯藥 恭讓之臣 乘隙謀傾 勢甚急 太宗應機制變 討除渠魁 群謀瓦解 秋七月 與諸將相倡以大義 推戴太祖 化家爲國 封靖安君 甲戌夏 高皇帝命遣親男入朝 太祖以我太宗通經達禮 取賢諸子 卽遣應命 既至 敷奏稱旨 優禮賜還 戊寅秋八月 太祖不豫 權臣朋家聚黨 有欲挾幼擅政 以肆己志者 禍發斯迫 太宗炳幾殲除 時宗親將相 皆欲請冊我太宗爲世子 太宗牢辭 推尊恭靖 上請太祖冊封世子 以定宗社 九月丁丑 太祖疾未瘳 禪于恭靖 建文庚辰正月 逆臣朴苞謀戕同氣 陰誘芳幹父子 稱兵爲亂 太宗勒軍平之 誅苞餘悉釋 安置芳幹 不廢懿親 恭靖以無嗣 且謂開國定社 皆我太宗之績 冊爲世子 冬十有一月 亦以疾傳位于我太宗 遣使請命 明年辛巳六月 建文帝遣通政寺丞章謹等 奉誥命印章來 封我太宗爲王 冬 遣鴻臚寺行人潘文奎來 錫冕服 秩視親王 歲壬午 今皇帝卽位 遣左政丞臣河崙 賀登極 帝嘉忠誠 明年癸未四月 賜以誥印 遣都指揮使高得等來 仍封爲王 秋 遣翰林待詔王延齡來 錫袞冕九章 錦段紗羅書籍 太祖錦段紗羅 元敬王太后冠袍錦段紗羅 各有差 自是厥後 帝賚荐至 無虛歲矣 歲乙酉 以漢陽太祖所都 排群議而還 歲丁亥 帝語朝正使臣曰 朝鮮國王至誠事大 自後每當使臣之至 輒稱至誠 戊子五月 太祖晏駕 哀慕罔極 居于諒闇 喪葬以禮 遣使告訃 帝震悼罷朝 遣禮部郎中林觀等 賜祭大牢 贈諡康獻 又勅太宗賜厚賻 壬辰冬 有以王氏之裔 隱於民間者上言 攸司請誅之 太宗曰 帝王之興 自有天命 誅王氏之後 非我太

祖本意 迺下教曰 王氏之後存者 俾之各安生業 甲午六月日 甘露降于咸興府月光仇未里及定平白雲山 明年乙未四月 甘露又降咸興府德山洞 吾東方前古所未有也 政府俱進箋賀 不受 戊戌六月 以世子禔敗德廢之 封讓寧大君 以我殿下聰明孝悌 好學不倦 國人屬望 冊封世子以聞 帝命允是年八月 禪于我殿下 遣使請命 十有一月 我殿下奉冊寶獻號 曰聖德神功上王 明年己亥正月 帝遣鴻臚寺丞劉泉等奉誥命 封我殿下爲王 五月 對馬島倭犯邊 殺掠軍士 命領議政臣柳廷顯及贊成臣李從茂等 以舟師往討之 島倭納款如舊 八月 帝遣使賜宴 勅書略曰 王至誠篤厚 祇事朝廷 一德一心 終始不怠 能簡賢命德 俾宗祀有托 以副國人之望 又賜宴我殿下 勅書略曰 爾父篤厚老成 祇敬天道 忠順之誠 愈久不替 九月 恭靖王卽世 服斬衰終易月之制 遣使告訃 明年四月 帝遣使致祭 賜諡恭靖 是年春 我殿下薨 群臣 請上太上王之號 不允 秋七月 元敬王太后薨 以我殿下哀毀過禮 命從易月之制 殿下涕泣固辭 乃命葬後釋服 白衣終制 九月壬午 葬太后于廣州治之大母山 陵曰獻 辛丑秋九月 我殿下奉冊寶獻太上王之號 十月 稟太宗命冊封元子 文宗諱 爲世子 太宗以不世之資 緝熙聖學 孝悌通於神明 誠敬格于宗社 事大則天子稱其至誠 交隣則倭邦服其有道 欽天恤民 崇儉節用 先德禮而慎刑罰 進忠直而黜奸邪 闢異端而禁淫祀 酌古今以定制度 昭文教而嚴武備 積弊悉革而庶績咸熙 四境安堵而民安物阜 帝王之道 嗚乎盛哉 宜其紆帝眷之隆 而再獲甘露之上瑞矣 壬寅四月 始不豫 粵五月丙寅 薨于離宮 我殿下不勝哀慟 三日撤膳 群臣涕泣 請進膳 竟不許 定爲三年之喪 不用易月之制 太宗春秋五十六歲 在王位十有九年 居間頤養五年 而弓劍忽遺 大小臣僚 下至僕隸 莫不失聲號哭 愈久愈哀 如喪考妣 嗚乎慟哉 以是年九月初二日丙辰 上尊號 曰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廟號太宗 初六日庚申 合葬于元敬王太后之陵 遺命也

及訃聞 帝哀慟輟朝 特遣禮部郎中楊善等賜祭 其文略曰 惟王篤厚至誠 聰明賢達 敬事朝廷 忠順之誠 終始不替 訃音遠聞 良深感悼 又賜誥命 諡曰恭定 又賜殿下賻優厚 蓋我太宗功德之盛及我殿下孝誠之至 前後相承 克享天心 故於終始之際 寵異之典 如此其備至矣 中宮元敬王太后姓 閔氏 驪興世家 自高麗門下侍郎平章事文景公諱令謨 六世而至皇高祖諱 宗儒 相穀陵 位都僉議侍郎贊成事 諡忠順 忠順生皇曾祖判密直司事諡文 順諱頤 文順生皇祖大匡驪興君諱抃 大匡生皇考純忠同德贊化功臣 大匡輔 國崇祿大夫 驪興府院君 修文殿大提學 領藝文春秋館事諡文度諱霽 皇妣 宋氏 封三韓國大夫人 高麗重大匡礪良君諱璿之女 積善流慶 是生淑德 聰慧異常 將笄擇配 來嬪于我太宗 太宗少有濟世之志 留心經史 不事家 產 太后能儉於治家 謹於主饋 以勉其功 教誨多男 俾循義方 禮遇妾侍 克盡婦道 洪武壬申 封靖寧翁主 戊寅 太宗定社之際 勢甚孤危 太后盡心 輔贊 以濟大事 庚辰春 封貞嬪 其年冬 太宗卽位 封靜妃 永樂癸未 帝賜 冠袍 自是年至丁酉 累受帝賜凡五 戊戌冬 我殿下獻號 曰厚德王大妃 庚 子九月 追諡元敬王太后 春秋五十六歲 太后稟幽閒貞靜之德 克配太宗 以專內治 二十年間 壺儀肅穆 又誕聖子 俾主宗社 以享榮養 及薨 嬪媵 妾侍 莫不盡心悲慟 婦則母儀 其至矣乎 誕四男四女 我殿下居三 長卽禋 次日補 封孝寧大君 次日 封誠寧大君 先卒 女長貞順公主 下嫁清平府院 君李伯剛 非一李也 次慶貞公主 下嫁平壤府院君趙大臨 次慶安公主 下 嫁吉昌君權跬 亦先卒 次貞善公主 下嫁宜山君南暉 懿嬪權氏 生一女貞 惠翁主 適雲城君朴從愚 昭惠宮主盧氏 生一女幼 信寧宮主辛氏 生三男 七女 男長禋 封恭寧君 餘幼 女長貞信翁主 適鈴平君尹季童 次貞靜翁 主 適漢原君趙璿 次貞淑翁主 適月城君鄭孝全 餘皆幼 宮人安氏 生一 男三女 皆幼 金氏生一男 封敬寧君 高氏生一男 崔氏生一男一女 李氏

生一男 金氏生一女 皆幼 我中宮恭妃沈氏 門下侍中德符第四子溫之女
誕四男二女 男長卽世子 餘皆幼 讓寧娶金漢老之女 生三男一女 皆幼 孝
寧娶前判中軍都摠制府事鄭易之女 生四男一女 皆幼 誠寧娶前全羅道都
觀察使成抑之女 無子 貞順公主生一女 適龍驤侍衛司護軍李季隣 亦非一
李 慶貞公主生四女 長適敦寧府丞安進 次適幼學金仲淹 餘幼 慶安公主
生二男 長聘娶漢城少尹鄭淵之女 次幼 貞善公主生二男一女 皆幼 敬寧
娶戶曹參議金灌之女 生二男 皆幼 恭寧娶兵曹參判崔士康之女 生二女
皆幼 臣竊觀我太宗之盛德隆功 固已高出於百王之上矣 而配匹之賢 內助
之功 又有可與蜀塗莘摯 同符而儷美者矣 群臣咸願刻銘于陵之神道碑 昭
示永世 殿下以命臣季良 臣季良承命祇慄 不敢辭 謹拜手稽首而獻銘 銘
曰

天眷海東 降我太宗 亶亶太宗 盛德在躬 推戴聖父 克集大功 乃覲帝庭
敷奏從容 優荷睿恩 保我黎元 炳幾靖亂 嫡長是尊 雖值閼牆 友愛猶惇
孝悌之至 從古罕聞 惟德之厚 惟功之懋 天鑑孔昭 式申保佑 煌煌金寶
輝映前後 帝詔荐臻 我乃龍受 祖訓惟服 還于漢北 制作禮樂 煥乎郁郁
遭喪居廬 哀慕罔極 以葬以祭 古典是式 祇事朝廷 帝稱至誠 肅肅承事
感于神明 交隣有道 倭邦來庭 存卹王裔 俾遂其生 中外乂安 垂億千齡
浥浥甘露 歲降咸府 廢昏命德 以作民主 期享永年 父臨下土 何促賓天
一疾莫愈 哀哀聖子 慟悼無比 撤膳三日 不勝摧毀 凡百喪事 惟禮之履
帝聞慟悼 遣使以祀 贈諡褒崇 賜賻優隆 恤典之備 喜溢臣工 思齊太后
允也肅雝 密贊定社 克配亶聰 篤生聖哲 俾主宗祏 乾健離明 恭定之德
坤厚柔貞 元敬之則 琴瑟以友 藏同其域 子孫振振 吁嗟其麟 綿綿宗社
垂萬億春 臣拜獻詞 刻之貞珉 萬代不磨 昭我東垠 [碑陰尹淮記]

5. 비음기

碑陰記

恭惟我太宗大王聖德神功卓冠前古春秋未高傳畀聖子方遂優閑備享榮養而弓劍忽遺我殿下哀毀盡禮越五月合葬于元敬王太后之獻陵遵治命也陵在廣州治之西大母峰下乾亥之山乾坐巽向北距京城三十許里謹按山來自長白山而南踰數千里至尙州之俗離山折而西北又數百里至果川之清溪山又折而東北負漢江而止是爲大母山坤靈停峙淑氣蜿蜒噫天祚地藏以待園陵之吉兆歟殿下命卽陵之巽方六十三步樹之豐碑以記德美垂輝來今又命序次開國佐命定社功臣姓名刻諸碑陰臣竊惟自古王者之作必有名世之臣應時而出弼成大業於是有紀功宗銘彝鼎之典所以示不朽傳悠久也我朝壬申之開創與夫戊寅庚辰之戡定實天所以啓我太宗以基朝鮮萬億年無疆之祚也然亦將相忘身委質贊襄輔佐之力與有多焉是宜鐫銘貞石以示永世後之觀者尙克知我殿下顯揚先烈褒獎元勳之至意云 藝文館提學[臣]尹淮記

開國功臣

益安大君芳毅 門下左侍中裴克廉 領議政府事趙浚 上洛府院君金士衡 興安君李濟 義安大君和 判漢城府事鄭熙啓 青海君李之蘭 宜城君南閭 花山府院君張思吉 政堂文學鄭摠 漢山君趙仁沃 宜寧府院君南在 議政府右議政鄭擢 知中樞院事金仁贊 判三司事尹虎 商山君李敏道 戶曹典書趙英珪 復興君趙胖 漢川府院君趙溫 南陽君洪吉旼 玉川府院君劉敞 平城府院君趙狷 知中樞院事黃希碩 興寧府院君安景恭 雞林君金樞 瑞城君柳爰廷 星山府院君李稷 寧城君吳思忠 安平府院君李舒 漢山府院君趙英茂 完城君李伯由 興原君李敷 延城君金輅 高城君高呂 東原君咸傳霖 西原府院君韓尙敬 上護軍韓忠 驪川府院君閔汝翼 知中樞院事趙琦

定社功臣

義安大君和 益安大君芳毅 上黨君李佇 領議政府事趙浚 上洛府院君金士衡 晉山府院君河崙 漢山府院君趙英茂 完原府院君李良祐 奉寧府院君福根 青海君李之蘭 花山府院君張思吉 漢川府院君趙溫 延城君金輅 議政府右議政鄭擢 完山府院君李天祐 中樞院副使張哲 鷲山君辛克禮

佐命功臣

喪黨君李夔[舊名佇] 晉山府院君河崙 漢山府院君趙英茂 鷲山君辛克禮 鷄城君李來 義安大君和

完山府院君李天祐 昌寧府院君成石璘 完川君李淑 青海君李之蘭 漆城君尹柢 參判三軍府事金英烈 坡平君尹坤 錦川君朴嘗 平陽君朴錫命 長興君馬天牧 漢川府院君趙溫 吉昌君權近 議政府左議政李原 星山府院君李稷 文城府院君柳亮 漢平府院君趙涓 平陽府院君金承霖 麻城君徐益 南陽君洪恕 漆原府院君尹子當 刑曹判書李升商 蓮城君金定卿 利城君徐愈 長川府院君李從茂 兵曹判書李膺 豐山君沈龜齡 谷山府院君延嗣宗 沔城府院君韓珪 熙川君金字 越川君文彬 礪山君宋居信 贈同知中樞院事金德生

6. 현릉지

卞季良, 《春亭先生續集》 卷1, 誌 獻陵誌

謹按 太后閔氏 驪興世家 自高麗門下侍郎平章事文景公諱令謨 六世而至皇祖諱宗儒 相毅陵 位都僉議侍郎贊成事 諡忠順 忠順生皇曾祖判密直司事諡文順諱頤 文順生皇祖大匡驪興君諱抃 大匡生皇考純忠同德贊化功

臣輔國崇祿大夫驪興府院君修文殿大提學領藝文春秋館事諡文度諱霽 皇妣宋氏 封三韓國大夫人 高麗重大匡礪良君諱璿之女 以乙巳丁卯 生太后于松京鐵洞私第 太后生而淑懿 聰惠異常 將笄擇配 來嬪于我聖德神功上王 少有濟世之志 留經史不事家產 太后能給於治家 僅於主饋 以勉其功 教誨多男 俾循義方 禮遇妾侍 克盡婦道 洪武壬申 上王扶太祖開國 封靜寧翁主 庚辰 恭靖王以無繼嗣 封我上王世子 封太后貞嬪 其年十一月 上王受恭靖內禪即位 封靜妣 永樂癸酉四月 帝遣趙居任 封我上王爲朝鮮國王 是年冬十月 帝賜太后冠袍 鮮麗罕比 自是年至丁酉 累受帝賜凡五 戊戌八月 上王傳位于我主上殿下 殿下即位 以其冬十一月甲寅 奉冊寶獻號上王曰聖德神功 太后厚德王大妃 己亥正月 帝賜誥印 封我主上殿下爲國王 庚子五月二十五日 太后感疾 上王日至視疾 主上侍側扇枕 親奉湯藥 凡所救療 無所不至 七月十日 薨于壽康宮別殿 春秋五十六 大小臣僚 下至僕隸 莫不痛哭 嗚乎痛哉 上王不勝軫悼 稍不豫 主上遣大臣請進肉不許 以白衣素膳 終三十日 主上哀痛罔極 居于諒闇 上王許於葬後釋服 主上以九月十四日 上尊號曰元敬太后 大臣獻議 以爲五月而葬 禮也 然宋制王公以下 皆三月而葬 今主上久居諒闇 不得問安 當作時宜 以從宋制 上王許之 越三月十七日壬午 安厝于廣州治之大母山 陵曰獻 太后稟幽閒貞靜之德 克配聖上 以專內治 十九年間 壺儀肅穆 又誕聖子 俾主宗社 以享榮養 嗚乎盛哉 太后誕四男四女 我主上殿下居三 長曰禔 嘗爲世子 不謹于德 羣臣上言不宜儲副 上王聞于帝廢之 封讓寧大君 次曰補 封孝寧大君 次曰種 封誠寧大君 先卒 長女貞順宮主 下嫁清平府院君李伯剛 非一李也 次慶貞宮主 下嫁平壤君趙大臨 次慶安宮主 下嫁吉昌君權跬 亦先卒 次貞善宮主 下嫁宜山君南暉 我中宮恭妃沈氏 門下侍中諱德符第四子溫之女也 誕四男二女 皆幼 讓寧娶金漢老之女 生三男一女 皆幼 孝寧

娶戶曹判書鄭易之女 生五男一女 皆幼 誠寧娶慶昌府尹成抑之女 無子
貞順宮主生女 適同副知敦寧李季隣 亦非一李 生一女 幼 慶貞宮主生四
女 長適幼學安進 餘幼 慶安宮主生二男 聘改娶司憲掌令鄭淵之女 次幼
貞善宮主生一男一女

여 백

선릉(宣陵)

1. 연혁

능 주 : 성종(成宗)[1457~1494]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1462~1530]

위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5-4

지정번호 : 사적 제199호

봉릉연대 : 1495년(연산군 원년)

전릉연대 :

왕릉형태 : 동원이강

2. 왕릉 소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선릉 입구역에 내려 8번 출구로 나가서 약 3분 정도 걸어가면 선릉에 도착할 수 있다. 능역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종의 무덤인 선릉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마주보이는 능상에 정현왕후의 무덤이 있다.

선릉은 동원이강릉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원이강릉이란 하나 이상의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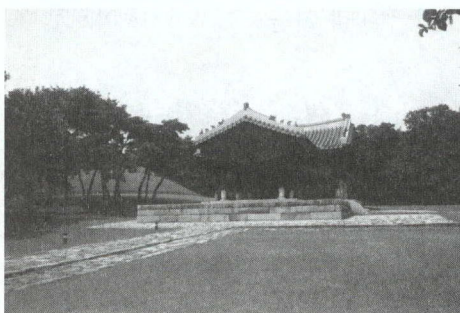
선릉 전경

이 같은 능호를 사용하지만, 각각 다른 언덕에 조성된 능을 말한다. 선릉의 왼쪽 언덕에는 성종 계비 정현왕후의 능, 오른쪽 언덕에는 성종의 능이 배치되어 있다. 성종의 능침 봉분은 십이지신상이 새겨진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웠다. 능에 병풍석을 세

우지 말라는 세조의 유교에 따라 세조의 광릉 이후 조성된 왕릉에는 세우지 않았던 병풍석을 성종의 선릉에 다시 세운 것이다.

그 밖의 상설은 『국조오례의』를 따르고 있다. 장명등의 양식은 태종의 현릉을 본떴으며, 문인석과 무인석의 얼굴은 극히 사실적이나 몸집이 크고 입체감이 없다. 왼쪽 언덕의 왕비 능에는 병풍석 없이 난간만 돌려져 있고, 석주의 윗부분은 초기 난간의 부드러운 맛이 그대로 남아 있다. 성종릉의 문무인석이 윤곽이 굵고 강직하다면, 왕비릉의 문무석인은 그 윤곽과 조각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1494년(성종 25) 12월 24일 38세의 나이로 성종이 승하하였고, 1495년(연산군 1) 1월 14일 묘호를 성종, 능호를 선릉이라 하여 같은 해 4월 6일 지금의 선릉 자리인 광주부 서면 학당리의 언덕에 안장하였다. 그로부터 35년 후인 1530년(중종 25) 8월 22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경복궁에서 69세의 나이로



선릉 정자각



선릉 전경



선릉 장명등과 봉분

승하하였고, 같은 해 10월 29일 선릉에 예장되었다.

그 후 선릉은 유난히 많은 변고를 겪었는데, 그 첫 수난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선조 26) 일어났다. 『선조실록』 1593년 4월 13일자 기사에는 “왜적이 선릉과 정릉을 파헤쳐 재앙이 재궁에까지 미쳤으니 신하로서 차마 말할 수 없이 애통합니다.”라는 경기좌도 관찰사 성영의 치계와 “이 서장을 보니 몹시 망극하다. 속히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라.”는 선

조의 명이 기록되어 있다. 1625년(인조 3)에는 정자각에 불이 나 수리를 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능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수난을 겪었으나 정비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3. 능주 소개

성종(成宗 ; 1457~1494, 재위기간 : 1469~1494)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와 세자빈 한씨(훗날 소혜왕후)의 둘째 아들로 1457년(세조 3) 7월 30일 경북



선릉의 봉분

궁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두 달이 되기 전에 의경세자가 20세로 요절하자 할아버지인 세조가 궁중에서 키웠는데, 성품이 뛰어나고 서예와 서화에도 능하여 세조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의경세자의 동생이자 성종의 숙부인 예종이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즉위 14개월 만에 승하하자 1469년 11월 28일 성종이 그 왕위를 계승했다. 즉위 후 7년 동안은 정희대비의 수렴청정을 받다가 20세가 되는 1476년(성종 7) 친정을 시작했다.

성종은 법령을 정리하여 세조 때부터 편찬해오던 『경국대전』을 1485년(성종 16) 반포했고, 1492년(성종 23)에는 『대전속록』을 완성하여 통치의 전거가 되는 법제를 완비했다. 세조 때의 공신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신진사림세력을 등용, 훈신과 사림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왕권을 안정시켰고, 조선 중기 이후 사림정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위 25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왕비 공혜왕후 승하 후 원자(연산군)를 낳은 숙의 윤씨를 계비로 삼았다가 행실을 문제 삼아 폐비 후 사사하였는데, 이는 훗날 연산군 폭정의 계기가 되었다.



선릉(정현왕후)근경



선릉(인현왕후) 장명등과 봉분

1494년(성종 25) 12월 24일
창덕궁의 대조전에서 보령
38세로 승하했다.

성종은 백성들이 사는 것
을 둘러보기 위해 자주 궐 밖
을 나가 몰래 다니기를 일삼
았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왕이 궐 밖을 다니며 겪은 일

화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다.

어느 해 겨울, 성종이 여느 때처럼 미행을 나갔을 때, 남산골 초라한 오막
살이에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담은 무너지고 서까래
가 썩어가는 누추한 곳이었는데, 『춘추좌전』을 읽는 소리가 물 흐르듯 막
힘이 없었다. 성종은 등불이 꺼져 불을 얻고자 한다는 핑계를 들어 집 안으
로 들어갔다. 글을 읽던 선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지은 문집을 읽어본
성종은 선비의 해박함과 그 문집의 명문에 깜짝 놀랐다. 훌륭한 학식을 갖
춘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어려운 살림을 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성종은 선비 몰래 쌀과 고기를 그 집에 보내고, 예정에 없던 과거령을 내렸
다. 그리고는 그 선비의 문집에
서 본 글을 과제로 내걸고, 선비
가 과거에 응시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선비의 문집에 있던 글
이 제출되자, 성종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그 글을 장원급제를
시켰다.



뒤에서 바라본 선릉(정현왕후)전경

그런데 글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그 선비의 이름이 아니었다. 이상하게 여겨 장원급제자를 들이라 하였는데, 주인공은 선비가 아닌 새파란 젊은이였다. 자초지종을 묻자 젊은이는 “그 글은 스승의 글이었으며, 스승께서 이번 과거를 꼭 보시려고 했으나, 며칠 전 굶주리다가 갑자기 먹은 고기 때문에 크게 병이 나셨다.”고 답하였다. 성종은 안타까움에 크게 탄식하였다고 한다.

한편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1462~1530)는 우의정 영원부원군 윤호의 딸로 1462년(세조 8) 6월 26일 태어났다. 1473년(성종 4) 6월 궁중에 뽑혀 들어와 숙의에 봉해지고, 1479년(성종 10) 연산군의 생모인 왕비 윤씨가 폐위되자 이듬해 11월 8일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호는 당시 정계에 떠오르는 소장파 셋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외척 한명회를 견제할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고,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후궁 중 왕비에 책봉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폐비 윤씨의 비극적인 최후를 바라본 정현왕후는 성종에게 매우 관대하였으며, 이에 성종은 “투기하지 않는 사람이 드문데, 다행히 어진 왕비를 얻어 마음이 평안하다.”고 칭찬하였다.

정현왕후는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과 신숙공주를 낳았는데, 공주는 일찍 죽었다. 연산군 때를 거쳐 아들인 중종이 왕위에 오른 뒤 1530년(중종 25) 8월 22일 경복궁에서 춘추 69세로 승하하여 10월 29일 선릉에 매장했다.

정현왕후 윤씨는 연산군의 생모인 왕비 윤씨가 폐비된 이후, 중전의 자리에 올라 원자인 연산군을 친아들처럼 키우게 되었다. 연산군 역시 정현왕후 윤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랐다.

연산군은 즉위 후 성종의 묘지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폐비 윤씨의 아버지 윤기무(尹起畝)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고는, 자신이 친어머니로 알고 있는 정현왕후 윤씨의 아버지 윤호(尹壕)를 윤기무로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

냐는 질문을 던질 만큼 폐비 윤씨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당시 이 질문에 승지들이 윤기무와 폐비 윤씨에 대해 답변하였고, 연산군은 그 때야 비로소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연산군일기』 1495년(연산군 1) 3월 16일자 기사에는 “왕이 비로소 윤씨(폐비 윤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산군일기』 1504년(연산군 10) 3월 20일자 기사에는 연산군이 폐비 윤씨의 죽음에 연루된 귀인 정씨와 엄씨를 잔인하게 때려죽인 뒤 장검을 들고 정현왕후의 처소로 쳐들어가 “어서 밖으로 나오라”며 횡포를 부린 기록이 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해치지 않았고, 정현왕후의 아버지 윤호가 폐비 윤씨의 복위 문제를 앞장서 반대하는 시점에서 정현왕후에 대한 예우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4. 선릉표석음기

朝鮮國

成宗大王宣陵

貞顯王后附左

成宗康靖仁文憲武欽聖恭孝大王 皇明天順元年丁丑七月三十日誕生 辛巳初封者山君 成化四年戊子加封者乙山大君 己丑十一月卽位 弘治七年甲寅十二月二十四日昇遐 乙卯四月六日葬于廣州西學堂洞壬坐之原 在位二十五年壽三十八 皇朝賜諡康靖 繼妃慈順和惠昭懿欽肅貞顯王后尹氏 天順六年壬午六月二十五日誕生 成化九年癸巳初封淑儀 庚子十月冊封王妃 嘉靖九年庚寅八月二十二日昇遐 十月二十九日葬于大王陵左岡艮坐之原 壽六十九

5. 선릉지

《成宗實錄》附錄 宣陵誌文

恭惟我大王諱某 德宗 第二子 仁粹王大妃 韓氏 以天順元年丁丑七月辛卯 誕王 德宗 爲世子早薨 世祖 育王于宮中 封爲 者山君 王天資明睿 世祖 奇愛之 嘗(與)[同]母兄 月山大君 婷 在宮中 忽雷雨暴作 震寺人於座 左右皆顛仆 王獨自若 世祖 尤異之 嘗曰 此兒器度類我 太祖 成化五年己丑 睿宗 薨 嗣子幼駘 貞熹王后 定議 以王爲嗣 庚寅帝遣使賜誥命 王命臣僚陳便宜 舉賢能 旌孝子節婦 其孝行尤異者錄用 令經筵官日三進講 夜亦召對以爲常 辛卯視學謁先聖 令文士問難經義 策諸臣有佐理勳者 賜功臣號 臺諫言事稱職 各賜爵一級 壬辰下教 諭民節儉 採歷代帝王及后妃善惡可法 可戒者釐 爲三編名曰 帝王明鑑 后妃明鑑 又圖畫明君暗主事迹于屏 坐臥觀省 鷹坊有海東青 命放之 終不復畜 甲午遣使 請追封德宗 爲王 帝允之 賜諡曰 懷簡 并賜 仁粹王大妃 誥命 王大赦 賜群臣爵一級 乙未祭先農耕籍田 王妃親蠶 建尊經閣于成均館 賜經籍藏之 丁酉謁先聖 行大射禮 罷誕日祝壽齋 戊戌祀先聖 養老乞言 命裒集古今東人詩文 名曰 東文選 撰地理誌 名曰 東國輿地勝覽 又撰 三國史節要 己亥帝發兵討 建州野人 勅出帥助征 王發兵擊破之 獻俘 帝賜勅褒賞 辛丑弛園囿樵獵之禁 癸卯册上爲世子 三月 貞熹王后 薨 服三年喪 甲辰甄別中外官吏淑慝 陞黜之 賜成均館學生田四百結 鄉學亦賜田有差 乙巳命今後再嫁女之子孫 勿齒朝班 世祖朝嘗撰 東國通鑑 未就 命續成之 丁未錄用 高麗 忠臣 鄭夢周 吉再 後 弘治戊申 仁粹王大妃 有疾 王嘗侍藥 疾瘳大赦 賜群臣爵一級 己酉鄉園策士有言 祀佛禳災者 王手教竄逐之 庚戌幸 驪州 謁 英陵 賜州民是年半租 所過州縣 遣官祭 先聖廟 賜學生

米有差 辛亥命自今兄弟叔姪堂兄弟 爭訟理曲者徙邊 野人 寇 永安道 殺鎮將 遣兵討破之 壬子罷度僧法 祀先聖 大饗師生及百僚 令製樂章以侑之 前代君王及名賢陵墓頽毀者 命修葺禁樵牧 甲寅秋王不豫 裁決庶務不少懈 十二月戊寅大漸 旦冠服召見大臣 翌日己卯薨于正寢 享年三十八 在位二十六年 聞喪之日 雖深山窮谷之民 莫不奔走號慟 王聰明英武寬仁恭儉 通貫經史 尤深於性理之學 星曆鍾律靡不講究 射藝書畫亦臻其妙 孝友出於天性 祭祀非有事故 必躬必謹 奉養三大妃克盡誠敬 待母兄恩豐備至 諸子教以義方 宗族極其雍睦 尊敬大臣禮遇臺諫 從容咨訪虛懷納採 寵待講官加以異數 每於經筵孜孜聽受 猶以爲未廣 擇二品以上可顧問者 輪日參侍 號爲特進官 至於郎吏悉知才行 用各盡能 總攬權綱 愛重名爵 如知其賢不次擢用 苟犯名義 雖才必黜 寬以御下罪疑多貲 唯閹寺雖小過必懲 養耆老 恤孤獨 明賞罰 慎刑獄 斥異端 扶正道 絕遊畋 戒逸欲 錄用忠孝 褒將節義 增修文廟 優贍學廩 訓練將士 擇任邊帥 閱武講蒐必以其時 遇災請行祈禳 則曰 消變在於修德 歲稔請加賦稅 則曰 百姓足 君誰與不足 却進膳曰 奉上之禮雖勤 恤下之情亦切 停禮宴曰 歲歉民飢 而獨樂可乎 大哉王言 眞天地父母之心乎 昊天不弔遽至厭世 慟哉 主上殿下 亮陰在疚 哀慕罔極 率群臣上尊諡曰 仁文惠武欽聖恭孝大王 廟號曰 成宗 以乙卯四月初六日己未 安厝于廣州治西學堂里之原 號曰 宣陵 噫 三代以下 終始全德之君寡矣 我 成宗 粹乎無以議爲 初在潛邸 聘領議政 韓明澮 之女 卽位封爲妃 無子薨諡曰 恭惠 陞 淑儀 尹氏 爲妃 卽判奉常寺事 起畎 之女 寔誕今上殿下 又陞 淑儀 尹氏 爲妃 卽領敦寧府事 壕 之女 生一男曰 懌 封 晉城大君 淑儀 嚴氏 生一女 曰 恭愼翁主 下嫁 清寧尉 韓景琛 淑儀 權氏 生一男幼 淑容 鄭氏 生二男一女 曰 恠 安陽君 娶知事 具壽永 女 曰 恠 鳳安君 娶贈左贊成 趙紀 女 女幼 淑

容 洪氏 生七男三女 曰 惠淑翁主 下嫁 高原尉 申沆 曰 畵 完原君 娶 贈左贊成 崔河臨 女 曰 恬 檜山君 娶奉事 安邦彥 女 曰 惇 甄城君 娶 參奉 申友灝 女 餘幼 淑媛 河氏 生一男 曰 恂 桂城君 娶判官 元菑 女 淑媛 金氏 生三男三女 曰 徽淑翁主 下嫁 豐原尉 任崇載 曰 敬淑翁主 未嫁 餘幼 淑媛 權氏 生一男一女 皆幼 淑媛 沈氏 生二男二女 曰 慶順翁主 下嫁 宜城尉 南致元 餘幼 今上殿下 聘右議政 愼承善 之女 今爲 妃 生二女 皆幼

6. 정현왕후선릉지

李荇, 《容齋先生集》 卷9, 散文 有明朝鮮國昭懿欽淑貞顯王后宣陵誌

謹按 王后姓尹氏 坡平世家 遠祖諱莘達 佐麗祖 封三韓功臣 有孫金剛 位至僕射 生諱執衡 繼爲僕射 其子門下侍中瓘 佐肅睿兩朝 出入將相 平女眞 置九城 封鈴原郡開國伯 侍中生政堂文學彥頤 文學生兵部侍郎惇信 至其曾孫監察御史純 生鈴平府院君寶 厥後有諱陟 封坡平府院君 生門下 評理承順 憲皇高祖 皇曾祖 本朝佐命功臣坡平府院君坤 祖 贈議政府領議政三山 皇考 議政府右議政鈴原府院君壕 皇妣 延安府夫人 姓田氏 贈議政府右議政佐命之女 亦延安望族也 以天順壬午六月戊子 誕后于新昌縣之公衙 初 夫人夢 神女乘彩雲 入懷中 因有娠 既而生后 父母奇異之 已知其爲貴徵 成化癸巳 后年十二 選入宮 封淑儀 卽成廟在位之第五年也 后性聰聽敏 心存純謹 貞熹 昭惠兩后 撫待特甚 教以婦道 承順無違 貞熹王后每稱歎曰 以尹淑儀試之 選女宜在年少 其教易習也 會王妃尹氏 罪廢 歲庚子十月 遂正位中宮 窈窕之求 不煩於寤寐 葛藟之化 素孚於媵

侍 率禮蹈和 久而彌虔 成廟每稱曰 婦人鮮不妬忌 自得賢配 予心安焉 昭惠王后亦喜溢於色曰 中聞得人 夙夜何憂 明年辛丑 憲宗皇帝制曰 尹氏夙事于王 克襄內治 職貢惟修 久而不替 茲特封爲朝鮮國王繼妃 錫之誥命 以爲爾榮 尙其祗服 用光閨闈 并賜冠服紵絲羅西洋布等件 寵命有章 一國與榮 時鈴原公尙無恙 后數幸其第 獻壽 國人以爲盛事 弘治壬子 率諸嬪 親蠶于昌德宮之禁苑 務敦本也 成廟爲頒赦肆恩 及成廟上賓 號擗不食 幾至危殆 賴昭惠王后救護得全 葦山朝 封爲王大妃 加上慈順之號 昭惠王后之喪 葦山議行短制 后據禮執以爲不可 且曰 我不敢從 主愠甚 以婦人三從之語答之 后歎曰 我其得罪於昭惠 明矣 葦山末年 失道滋甚 朝野岌岌 莫保朝夕 正德丙寅九月 群臣奉后教 翊扶聖明 入承大統 中興之業 比古有光 自後於國政 一無所與 然其深遠之猷 不忘頃刻 姑息之惠 無假絲毫 至章敬王后薨逝 后惜其賢德之早逝 悶其元良之失恃 爲之慟悼不已 其所以調護世子 有非外間所盡知者 宮中有灼鼠之變 上命鞠問內人 未得其狀 后以諺札付推官 卽辨決置罪 朝廷搢紳之士 下至縫掖之徒 無不嘖嘖稱快 嗚呼 誕育聖上 丕闡中絕之緒 保護東宮 益鞏萬世之基 雖古之賢妃 未有盛德大功如此其卓爾者也 后嘗疾病甚革 上親禱于內苑 焚香祝天 病良愈 人以爲孝誠所感 至是 又患疾 彌留累月 上常侍藥 非親嘗 不敢進 竟不效 薨于景福宮之正寢 寔嘉靖庚寅八月二十二日也 春秋六十有九 上哀毀 不能進粥食者三日 殯後 猶日五哭 盡哀 左右不忍聞 內而宮掖 外而朝廷 莫不號慟失聲 禮官會宰相議諡 咸曰 按諡法有曰 大慮克就曰貞 行見中外曰顯 大行大妃定大策於板蕩之日 而大業再興 辨大疑於宴安之時 而大本益固 不其貞矣乎 德著於中壺 而無險謁之私 化行於外庭 而有肅雍之習 不其顯矣乎 謹上諡曰 貞顯王后 又加上徽號曰 昭懿欽淑 用是年十月二十九日乙酉 葬于宣陵之左 艮坐坤向之原 從遺

命也 嗚呼 后之聖德 無不周備 至於誠孝 尤出天性 上奉慈殿 極其歡心 凡遇節物 先薦原廟 終不少弛 又撫恤諸子女 如己出 蕤山主爲世子時 亦未知其非生母也 及病 分遺財 徧賜親戚 而未嘗爲求恩澤 又欲嘗鵲鷄肉 有內親得之以獻 后戒毋令外人知 蓋慮其供進之弊也 疾病之際 人所易昏 而聖心之謹 有至如此 平時聖行 槩可見矣 嗚呼 后之聖德 有非言語文字 所能形容 而至於內行之懿 幽而不顯 謹掇拾其彰徹在人耳目者 誌之 亦千百之一二耳 然後之人 因是以徵 雖古之塗莘任姒 無以尚之 嗚呼盛矣哉 后誕今上 又生三公主 皆夭 今上 初聘坡原府院君尹汝弼女 封中宮 卽章敬王后 生一男一女 男世子 諱 聘贈議政府右議政朴堧女 孝惠公主 下嫁延城尉金禧 今中宮 領敦寧府事尹之任女 生三女 長懿惠公主 許嫁清原尉韓景祿 兩公主幼 前嬪朴氏 生一男二女 男前福城君帽 娶前縣監尹仁範女 女長惠順翁主 下嫁光川尉金仁慶 次惠靜翁主 下嫁唐城尉洪礪 貴人洪氏 生一男錦原君崐 娶敦寧府主簿鄭承休女 淑媛洪氏 生一男海安君崙 娶忠清道水軍節度使柳泓女 淑媛安氏 生一男永陽君峿 淑媛李氏 生二女 長貞順翁主 下嫁礪城尉宋寅 次幼 嘉靖九年庚寅十月日 謹誌

정릉(靖陵)

1. 연혁

능 주 : 중종[1488~1544]

위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9호

봉릉연대 : 1545년(인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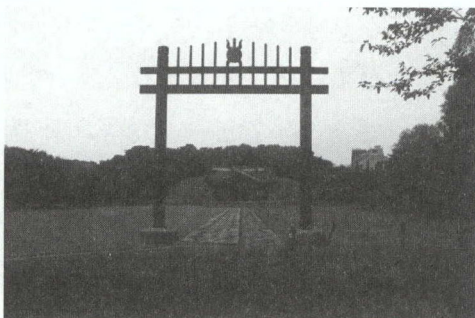
전릉연대 : 1562년(명종 17)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선릉 입구역에 내려 8번 출구로 나가서 약 3분 정도 걸어가면 선릉에 도착할 수 있다. 능역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종의 무덤인 선릉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마주보이는 능상에 정현왕후의 무덤이 있다. 이곳을 지나 야트막한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 중종의 무덤인 정릉이 나타난다.

정릉은 조선 11대 왕 중종의 능이다. 중종에게는 3명의 왕후와 7명의 후궁



정릉 전경

이 있었으나 사후에는 어느 왕비와도 함께 있지 못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능인 선릉 옆에 홀로 묻혀, 조선시대의 몇 안되는 단릉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릉의 상설은 성종의 선릉과 같이 『국조오례의』를 따르고 있다. 석양과 석호의 전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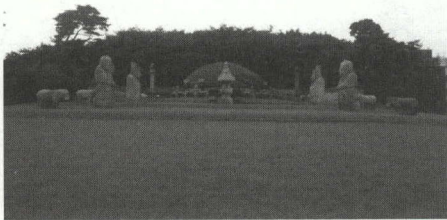
자세는 선릉과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반면 전체적으로 형식화된 경향이 있다. 문무인석은 높이가 3m가 넘을 정도로 큰 편이다. 문무인석 얼굴의 통방울눈이 특이하며 코부분이 훼손되고 검게 그을려 있어 정릉의 수난을 상기시켜 준다. 석호의 익살스러운 입 모양은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한다.

정릉의 원찰인 봉은사는 보우가 주지로 있던 사찰로, 794년 연희국사가 견성사(見性寺)란 이름으로 창건한 이후 1498년(연산군 4)에 중창하면서 봉은사로 개칭하였다.

인종은 1545년(인종 1) 1월 5일 중종을 고양에 예장하고 능호를 희릉(禧陵)이라 하였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고양시의 현재 서삼릉 능역 내에 있는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 윤씨의 능 오른쪽 언덕에 능을 새로 조영하고, 능호를 정릉으로 고쳤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1562년(명종 17)에 두 번째 계비



정릉 정자각



정릉 원경

라 하여 옮긴 곳이었으나 지세가 낮아 여름철 홍수 때면 재실과 홍살문이 침수되는 피해를 자주 입었다. 결국 중종과 함께 안장되기를 바랐던 계비 문정왕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태릉(泰陵)에 단릉(單陵)으로 안장되어 있다.

문정왕후의 바람으로 인해 천장된 현재의 정릉은 임진왜란 때 선릉과 함께 왜구에 의해 능이 파헤쳐지고 재궁이 불태워지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문정왕후에 의해서 중종의 아버지 성종과 어머니 정현왕후의 능이 있는 현재의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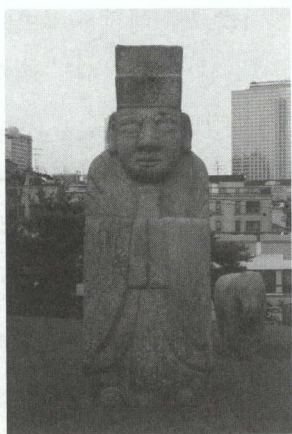
문정왕후가 봉은사 주지 보우와 의논하고, 그곳은 풍수지리가 좋지 않으며 선릉의 동쪽이 풍수상 길지

3. 능주 소개

중종(中宗 ; 1488~1544, 재위기간 : 1506~1544)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 사이의 둘째 아들이자 제10대 임금이었던 연산군의 이복 동생으로, 1488년(성종 19) 3월 5일 태어났다. 1494년(성종 25) 진성대군(晋城大君)에 봉해졌다가 1506년



정릉 전경



정릉 문인석

에 연산군의 계속된 폭정에 대항하여 박원종, 성희안 등이 일으킨 중종반정에 의해 조선 11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중종은 즉위 초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새로운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1515년(중종 10) 이후에는 조광조를 내세워 철인군주정치를 표방하여, 훈구파를 견제하고 사림파를 등용하였으나, 과격한 개혁정치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당파논쟁이 끊이지 않아 기묘사화가 일어나는 등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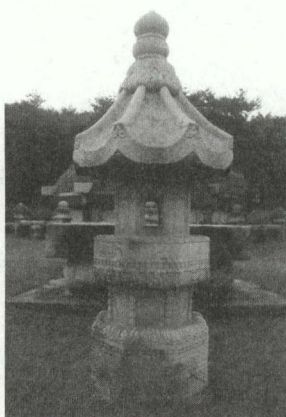
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향약이 전국화되어 유교적 향촌질서가 자리를 잡았으며,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많은 서적이 편찬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동전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도량형의 통일을 꾀하였으며, 사치를 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산군 축출에 반대한 아버지로 인해 폐위당한 단경왕후,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까지 3명의 왕비를 두었으며, 1544년(중종 39) 11월 14일 왕세자에게 전위하고, 그 다음날 창경궁 환경전에서 5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1506년(연산군 12) 중추부지사 박원종이 이조참판을 지낸 성희안, 이조판서 유순정, 군자부정신윤무 등과 함께 연산군의 폭정에 반기를 들어 난을 일으켰다. 그들은 밀약 후 왕이 장단 석벽에



정릉 무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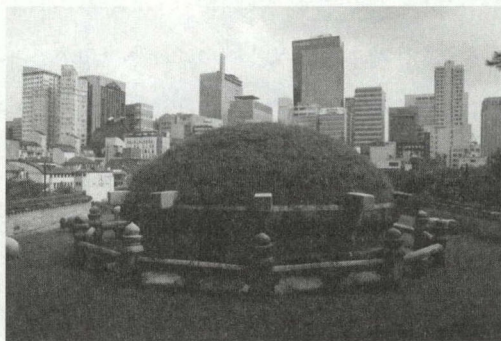
정릉 장명등

유람하는 날을 기하여 거사하기로 계획을 꾸몄다.

1506년 9월 1일, 박원종, 성희안, 신윤무 등은 훈련원에 무사들을 결집시켰다. 훈련원을 출발한 반정세력은 창덕궁 어귀의 하마비동에서 영의정 유순, 우의정 김수동 등을 만나 함께 진을 치고 경복궁에 있는 대비에게로 가서 거사의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대비는 신료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연산군 폐위와 진성대군의 추대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렸다.

교지를 받은 반정주도세력들은 먼저 권신 임사홍, 신수근 등 연산군의 측근을 죽인 다음 궁궐을 에워싸고 옥에 갇혀 있던 자들을 풀어 종군하게 하였다.

이튿날인 9월 2일 박원종 등은 군사를 몰아 텅 빈 경복궁에 들어가서 연산군에게 옥새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안 연산군은 옥새를 내어주었고, 반정군의 호위를 받으며 경복궁에 도착한 진성대군은 대비의 교지에 힘입어 조선 11대 왕 중종으로 등극하였다.



뒤에서 바라본 정릉 전경

4. 정릉표석음기

朝鮮國

中宗大王靖陵

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 皇明弘治元年戊申三月五日誕生 初封晉城大君 正德元年 丙寅九月二日卽位 嘉靖二十三年甲辰十一月十四日傳位于仁宗 同月十五日昇遐 乙巳二月葬于高陽禧陵 嘉靖四十一年壬戌九月四日移葬于廣州宣陵東岡乾坐之原 在位三十九年 壽五十七 皇朝賜諡恭僖

5. 정릉지

《仁宗實錄》卷 1, 仁宗 元年 正月 24日(戊午)

吏曹參議 洪春卿 製進大行大王誌文 其辭曰 恭惟我 中宗大王 諱某 成宗 第二子也 成宗 在潛邸 聘領議政 韓明澮 之女 及卽位封爲妃 無子 薨 陞 淑儀 尹氏 爲妃 卽判奉常寺事 起畎 之女 生世子 僖 妃性行不淑 廢之 又陞 淑儀 尹氏 爲妃 卽右議政 壕 之女 弘治 元年戊申三月己巳 誕生大王 封 晉城大君 少有異質 成宗 特奇愛之 歲甲寅 成宗 薨 嗣君 失道 宗社將傾 丙寅九月 知中樞府事 朴元宗 前參判 成希顔 吏曹判書 柳順汀 首建大義 承 慈順王妃 教 廢爲 燕山君 迎大王於私第 大王牢讓 不獲 卽位於 景福宮 遂下教 凡非罪流竄者 悉皆召還 枉被刑戮者 咸加褒贈 除害民之政 復先王之舊 朝野抃舞 如獲重生 修明學校 崇獎節義 苟有一善一行 無不褒獎 至於清白忠義之後 亦皆收敘 博選鴻儒碩士 置

諸經幄 日三進講 夜又召對 論難經義 商確治道 下素屏於弘文館 書歷代帝王爲治之道 以備觀覽 丁卯三月幸學 橫經問難 八月 命印頒 三綱行實 壬申八月 行養老宴于闕庭 六月 遣官以小牢 祀 崇義殿 殿卽 高麗 王氏之廟也 命製酒戒 賜臣工以警之 丁丑五月 王以世子三歲 能知學問向方 手書箴辭以戒 皆古聖賢格言也 母妃未寧 王晝夜侍側 湯藥必親 躬禱後苑 未幾疾瘳 人以爲誠孝所感 王幸學講論經義 日昃而罷 教曰 學校 風化之源 人才之府 爲國之道 莫重於此 予今竭誠圖治 夙夜軫念 今賜土田 臧獲 以爲養育人才之資 庚辰四月 冊封世子 辛巳五月 帝遣太監 陳浩等 來錫命 壬午十月 行世子冠禮 頒赦境內 重國本也 癸未 命印 諡解小學 宣布中外 欲使閭巷婦人小子 皆得以知之 八月 島夷犯上國地 而搶擄人民 漂到我界 邊將俘斬以聞 王遣臣悉獻俘馘 帝嘉之 降勅賜物褒美 戊子 幸 驪州 祭 英陵 賜州民田租之半 庚寅八月 母妃薨 喪制一依禮文 常處外閣 後大臣請還大內 王竟不從 甲午八月 幸學行大射禮 乙未八月 幸 開城府 祭 齊陵 翌日幸學取士 賜米百斛 庚子夏大旱 徧禱山川不雨 王去輦乘輿 曝日親禱于風雲壇 遂得三日雨 甲辰冬十月 王有疾 至十一月十四日 疾大漸 召左議政 洪彥弼 右議政 尹仁鏡 入臥內教曰 予疾甚 欲傳位于世子 翌日庚戌 薨于正寢 享年五十七 王仁慈忠孝 力學慕古 勤於聽納 存恤民隱 尤勤祀事 寅恭祗畏 誠意終始不替 培養人才 文教大興 尊禮大臣 國事必與謀議而後行 撫愛宗戚 皆得其歡心 教戒王子 盡其義方 無有驕奢之習 多聚經術之士 講明性理之學 夜以繼日 亶亶忘倦 無遊畋聲色之娛 絕玩好奢靡之事 在位三十九年 民人樂業 生齒日繁 島夷山戎 慕義歸順 邊境無虞 不識兵革 致治之美 將陞大猷 而八音遽遏 嗚呼慟哉！我殿下(下)諒陰在疚 哀慕罔極 率群臣上尊號曰 徽文昭武欽仁誠孝廟號 中宗 以其(扶)[撥]亂反正 中興功德 儷美 商宗 周宣 也 乙巳二月某

甲 安厝于 高陽 治之某原 卽 章敬王后 所厝 禧陵之右 遂仍號焉 初王在潛邸 聘 愼守勤之女 以 守勤 有罪廢之 陞 淑儀尹氏 爲妃 卽領敦寧府事 汝弼 之女 辛未 生一女 曰 孝惠公主 下嫁 延城尉 金禧 乙亥二月二十五日 誕我殿下 仍有疾 越三月二日薨 歲丁丑 聘領寧敦府事[領敦寧府事] 尹之任 女爲妃 殿下在東宮 聘贈右議政 朴墉 之女爲嬪 及卽位封爲妃 尊 王妃 尹氏 爲王大妃 大妃生一男四女 曰 孝順公主 下嫁 綾原尉 具思顏 曰 懿惠公主 下嫁 清原尉 韓景祿 曰 敬顯公主 下嫁 靈川尉 申機 曰 恒 封 慶原大君 娶別坐 沈綱 女 次女幼 敬嬪 朴氏 生一男二女 曰 岬 福城君 娶縣監 尹仁範 女 曰 惠順翁主 下嫁 光川尉 金仁慶 曰 惠靜翁主 下嫁 唐城尉 洪礪 熙嬪 洪氏 生二男 曰 嶺 錦原君 娶都事 鄭承休 女 曰 岍 鳳城君 娶正郎 鄭惟仁 女 淑媛 洪氏 生一男 曰 崙 海安君 娶參奉 愼弘猷 女 淑媛 李氏 生二女 曰 貞順翁主 下嫁 礪城尉 宋寅 曰 孝靜翁主 下嫁 淳原尉 趙義貞 淑容 安氏 生二男一女 曰 岨 永陽君 娶縣監 安世亨 女 曰 岵 德興君 娶知中樞府事 鄭世虎 女 曰 靜愼翁主 下嫁 清川尉 韓景祐 淑媛 李氏 生一男 曰 岐 德陽君 娶參議 權纘 女 淑容 金氏 生一女 曰 淑靜翁主 下嫁 綾昌尉 具澣

上以誌文下于政院 有頃更命入內 傳曰 教可後 更取 英陵 宣陵 誌文考之 則 英陵 誌文 悉載王孫 而今大行大王誌文 闕而不載 予心疑焉 且反正之時 大臣與群下 建議推戴也 非承王妃之教也 今誌文 承 慈順王妃教 廢爲 葦山君 此語恐似不當 其與院相[尹仁鏡] 更議之 仁鏡 啓曰 先稱 朴元宗 首建大義 次言承 慈順王妃 教 廢爲 葦山君 可見大臣推戴之意 且廢立 不可爲言 故言勢如此而後 名正言順也 慈順王妃 誌文 亦稱群臣奉后教 翊扶聖躬 亦此義也 且凡喪禮 一依甲寅年故例 而 宣陵 誌文 不載王孫 故今亦倣而不載矣 答曰 承王妃教之言知之 英陵 誌文載王

孫 而 宣陵 誌文不載者 得非甲寅年 王孫未生故耶 更議之 仁鏡 啓曰 甲寅年 王孫生未生 臣未及考之 臣當更考入啓

林亨秀,《錦湖遺稿》誌 有明朝鮮國中宗恭僖徽文昭武欽仁誠孝大王靖陵誌

恭惟我中宗大王諱某 成宗第二子也 成宗在潛邸 聘領議政韓明澮之女 及卽位 封爲妃 無子薨 陞淑儀尹氏爲妃 卽判奉常寺事起畎之女 生世子 妃性行不淑 廢之 又陞淑儀尹氏爲妃 卽右議政壕之女 弘治元年戊申三月 己巳 誕生大王 封晉城大君 少有異質 成宗特奇愛之 歲甲寅 成宗薨 嗣君失道 宗社將傾 丙寅九月 知中樞府事朴元宗, 前參判成希顔, 吏曹判書柳順汀 首建大義 承慈順王大妃教 廢爲燕山君 迎大王於私第 大王牢讓不獲 卽位於景福宮 遂請命於朝 下教凡非罪流竄者悉皆召還 枉被刑戮者咸加褒贈 除害民之政 復先王之舊 朝野抃舞 如獲重生 修明學校 崇獎節義 苟有一善一行 無不褒獎 至於清白忠義之後 亦皆收敘 博選弘儒碩士 置諸經幄 日三進講 夜又召對 論難經義 商確治道 下素屏於弘文館 書歷代帝王爲治之道 以備觀覽 丁卯三月 幸學 橫經問難 八月 命印領三綱行實 戊辰二月 帝遣太監李珍, 陳浩 賜誥命冕服 封爲王 壬申八月 行養老宴于闕庭 六月 遣官以小牢 祀崇義殿 殿卽高麗王氏之廟也 命製酒戒 須賜臣工以警之 丁丑五月 王以世子三歲能知學文向方 手書箴詞以戒 皆古聖賢格言也 母妃未寧 王晝夜侍側 湯藥必親躬禱後園 未幾疾瘳 人以爲誠孝所感 王幸學 講論經義日昃而罷 教曰 學校 風化之原 人材之府 爲國之道 莫重於此 予今竭誠圖治 夙夜軫念 今賜土田臧穫 以爲養育賢材之資 庚辰四月 冊封世子 辛巳五月 帝遣太監陳浩等來賜命 壬午十月 行世子冠禮 頒赦境內 所以重國本也 癸未 命印譯解小學 宣布中外 欲使閭巷婦人小子 皆得以知之 八月 島夷犯上國地面 搶虜人民 漂到我界 邊將

俘斬以聞 王遣臣悉獻俘馘 帝嘉之 降勅賜物褒美 戊子 幸驪州 祭英陵 賜州民田租之半 庚寅八月 母妃薨 喪制一依禮文 常處外閣 卒哭後 大臣請還大內 王不從 甲午八月 幸學大射禮 乙未九月 幸開城府 祭齊陵 翌日 幸學取士 賜學生米百斛 庚子夏 大旱 遍禱于山川 不雨 王去輦乘輦 曝日親禱于風雲壇 遂得三日雨 甲辰冬十月 王有疾 十一月十四日 疾大漸 召左議政洪彥弼、右議政尹仁鏡入臥內 敎曰 予疾甚 欲傳位於世子 翌日庚戌 薨于正寢 享年五十七 王仁慈忠孝 力學慕古 勤於聽納 存恤民隱 尤謹祀事 寅恭祗畏 至誠事大 終始不替 培養人才 文教大興 尊禮大臣 國事必與謀議而後行 撫愛宗戚 皆得其歡心 敎戒王子 盡其義方 無有驕奢之習 多聚經術之士 講明性理之學 夜以繼日 亹亹忘倦 無遊畋聲色之娛 絕玩好奢靡之事 在位三十九年 人民樂業 生齒日繁 島夷山戎 慕義歸順 邊境無虞 不識兵革 致治之美 將升大猷 而八音遽遏 嗚呼慟哉 我殿下亮陰在疚 哀慕罔極 率群臣上尊諡曰 徽文昭武欽仁誠孝 廟號中宗 以其撥亂反正 中興功德 儷美商宗周宣也 乙巳二月九日某甲 安厝于高陽郡治南蘆洞壬坐丙向之原 卽章敬王后所厝禧陵之右 改號曰靖 初王在潛邸 聘愼守勤之女爲妃 以守勤有罪廢之 陞淑儀尹氏爲妃 卽領敦寧府事汝弼之女 辛未 生一女 曰孝惠公主 下嫁延城尉金禧 乙亥二月二十五日 誕我殿下 仍有疾 越三月二日薨 歲丁丑 聘領敦寧府事尹之任女爲妃 殿下在東宮 聘贈右議政朴堉之女爲嬪 及卽位 封爲妃 王妃尹氏爲王大妃 大妃生一男四女 曰懿惠公主 下嫁清原尉韓景祿 曰孝順公主 下嫁綾原尉具思顏 暉顯公主 下嫁靈川尉申穰 曰諱封慶原大君 娶別坐沈綱女 次幼 敬嬪朴氏生一男二女 曰峒 福城君 娶縣監尹仁範女 曰惠順翁主 下嫁光川尉金仁慶 曰惠靜翁主 下嫁唐城尉洪礪 熙嬪洪氏生二男 曰嶺 錦原君 娶都事鄭承休女 曰岈 鳳城君 娶正郎鄭惟仁女 淑媛洪氏生一男 曰嵴 海安

君 娶參奉愼弘猷女 淑媛李氏 生二女 曰貞順翁主 下嫁礪城尉宋寅 曰孝靜翁主 下嫁淳原尉趙義貞 淑容安氏生二男二女 曰岨永陽君 娶縣監安世亨女 曰岨 德興君 娶中樞府事鄭世虎女 曰靜順翁主 下嫁清川尉韓景祐 淑媛李氏生一男 曰岐 德陽君 娶參議權讚女 淑容金氏生一女 曰淑靜翁主 下嫁綾昌尉具澣 孝惠生一女 適幼學尹百源 懿惠生一女 幼 岨生一女 適幼學崔禮秀 岨生一女 幼 惠靜生一女 適幼學尹琬 貞順生一男 孝靜生一男 靜愼生一男 岐生一男 皆幼

여 백

태릉(泰陵)

1. 연혁

능 주 : 문정왕후 윤씨[1501~1565]

위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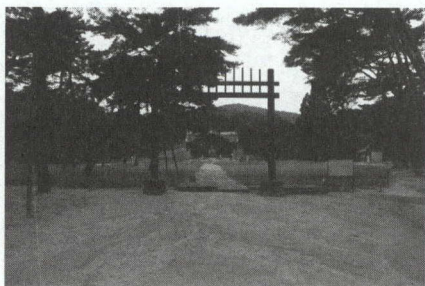
봉릉연대 : 1565년(명종 20)

전릉연대 :

왕릉형태 : 단릉

2. 왕릉 소개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고 있는 태릉 입구역에 내려 버스를 갈아 타고 육군사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를 지나 태릉선수촌 방향으로 가다 보면 태강릉에 도착할 수 있다. 능역 안으로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것이 중종의 세 번째 부인 문정왕후의 무덤인 태릉이고, 태릉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문정왕후의 아들이며 조선왕조 제13대 임금 명종의 무덤인 강릉이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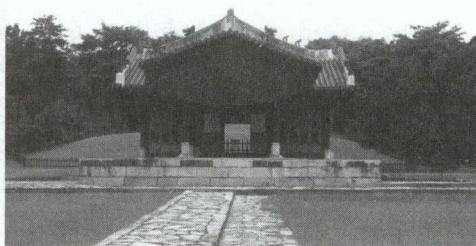
태릉 원경

치하고 있다. 현재 태강릉 능역 안에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009년 7월 완공 목표로, 태강릉전시관.이 공사중에 있다. 이 전시관은 조선왕릉의 조성과정과 당시 국장 절차 등을 전시하게 될 예정이다.

태릉(泰陵)은 조선 왕조 제11대 임금 중종(中宗)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의 능이다. 1565년 문정왕후의 서거 뒤에 조성되었다. 본래 문정왕후는 중종의 능인 정릉에 중종과 같이 묻히고 싶어하였으나, 정릉의 지대가 낮아 능원 지대가 침수된다 하여, 결국 곁에 묻히지 못하였다.

태릉의 능침은 단릉 형식이다. 상설제도는 『국조오례의』를 따르고 있다. 봉분 아래에는 구름과 십이지신을 의미하는 방위신이 새겨진 병풍석을 들렀으며, 그 주위를 난간석으로 다시 보호하였다. 병풍석 위의 만석(滿石) 중앙에는 십이간지를 문자로 새겨놓았다. 원래 십이간지가 문자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병풍석을 없애고 신상을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등장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신상과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어 주목된다.

문무석인은 목이 짧고 얼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형태이다. 문석인은 높이가 260cm로, 관복에 과거 급제자가 홍패를 받을 때 착용하는 복두(幘頭)를 쓴 공복차림을 하고 있다. 두 손으로



참도와 정자각



태릉 능상 원경

는 홀(笏)을 공손히 맞잡고 있는데, 왼편의 문석인의 경우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있는 반면 오른편의 문석인은 그 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좌우 문석인의 홀을 잡는 방법은 동일하나 이곳 태릉과 창릉(昌陵)의 경우만이 예외를 이룬다.

무석인은 문석인과 비슷한 크기이며,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투구를 쓴 위용 넘치는 무장(武將)의 모습이다. 문무석인을 통틀어 얼굴과 몸통의 비례가 1대 4 정도로 머리 부분이 거대하며, 안면 부분을 제외하고는 입체감이 결여되어 사각 기둥과 같은 형태이다. 한편 태릉에서는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한 금천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태릉은 왕이 아닌 왕비의 단릉(單陵)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웅장한 느낌을 준다. 이는 조성 당시 문정왕후의 세력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1565년(명종 20) 4월 7일 문정왕후가 창덕궁 소덕당에서 65세로 승하하자 4월 12일 시호와 존호를 올리고 능호를 신정릉이라고 했다가 6월 4일 태릉으로 고쳤다. 7월 15일 현재의 위치에 예장했다.

문정왕후는 사후에 중종 곁에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으므로 자신의 능과 함께 쓸 요량으로 봉은사 주지 보우와 상의하여 지금의 서삼릉에서 장경왕후릉 옆에 있던 중종 왕릉을 선릉 부근으로 천장하였다. 그러나 새로 옮긴 중종의 능은 지대가 낮아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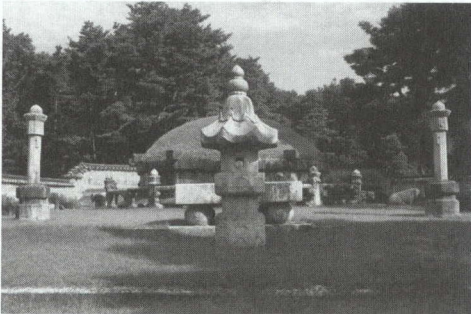


태릉 전경

피해가 자주 일어났으므로, 문정왕후는 그 자리에 함께 묻히지 못하고 현재의 위치에 예장되었다. 결국 중종과 함께 묻히고자 했던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태릉의 정자각은 한국 전쟁 시 파손되어 석축과 초석만 남아 전하고 있던 것을 1994년에 복원한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전(正殿)과 그 앞의 배전(拜殿)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능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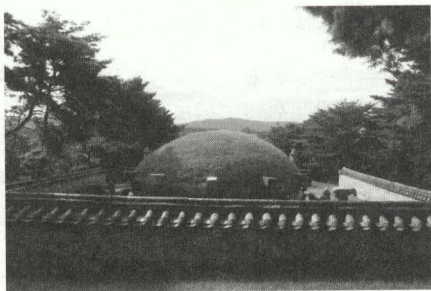


태릉 근경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1501~1565)는 1501년(연산군 7) 10월 22일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딸로 태어났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가 1515년(중종 10) 인종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7일 만에 승하하자, 2년 뒤인 17세 때 왕비로 책봉되었다. 당시 인종이

세자로 책봉된 가운데, 문정왕후가 경원대군(훗날 명종)을 낳자, 기존의 세자를 폐하고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소윤(小尹)과 기존의 세자를 지키려는 대윤(大尹) 간의 권력싸움이 조정을 어지럽게 하였다.

이 가운데 1544년(중종 39) 11월 15일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여 대윤이 득세하는 걸로 당쟁이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자 정권은 경원대군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로 넘어왔다.



뒤에서 본 태릉

1545년 명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그녀는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면서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 문정왕후의 오빠인 윤원형을 포함한 소운 일파는 대운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을사사화를 일으켰으며, 그 후 다시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많은 사

람들을 희생시켰다.

왕후는 불교에 대한 믿음이 깊어 반대를 무릅쓰고 승과(僧科)를 두었고 선·교(禪·敎) 양종을 부활시키는 등 불교진흥에 노력하였다. 권세를 누리던 문정왕후는 1565년(명종 20) 4월 7일 창덕궁 소덕당에서 춘추 65세로 승하였다.

<양재역 벽서사건>

1547년(명종 2) 경기도 광주 양재역에 “여왕이 집정하고 간신이 권세를 휘둘러 나라가 망하려 하는데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벽보가 붙게 되었다. 여기서 여왕은 명종을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게 된 문정왕후를 일컫는 것이다. 이 벽보를 계기로 당시 학계와 정계에는 을사사화에 이은 큰 피바람이 몰아닥쳤다.

이와 같이 문정왕후와 그녀의 형제들인 윤원형, 윤원로는 집권 초기 자신의 반대파를 유배 보내거나 죽이는 등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였다. 문정왕후 집권 시의 정치가 선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는 당시의 대 유학자 조식이 그에게 내려진 벼슬을 사양하면서 올린 상소에 잘 드러나 있다.

전하의 국사(國事)가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망하여 하늘의 뜻이 떠나갔

고 인심도 떠났습니다. …소관(小官)은 아래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주색이나 즐기고, 대관(大官)은 위에서 어물거리면서 오직 재물만을 불립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신은 이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길게 탄식하며 낮에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한탄하고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밤에 멍하니 천장을 쳐다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전(慈殿·문정왕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지만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寡婦)에 지나지 않으시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한낱 외로운 후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백 가지의 재앙과 억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겠습니까?

이러한 직설적인 상소에도 조식은 무사하였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당대 그녀에 대한 위험한 언급이 금기가 될 정도로 커다란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다.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다?>

『명종실록』에는 함흥에서, 경기도 안성에서, 경상도 의성에서, 여러 지방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다.”는 보고를 받은 내용이 여러 차례 올라와 있다. 이러한 재미있는 기록이 나타나는 시기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정권을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문정왕후 승하에 관한 『명종실록』의 기사에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서경(書經)』 목서(牧誓)에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이 다함이다.” 하였으니, 윤씨(尹氏 : 문정왕후)를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

<불교 중흥 정책을 편 문정왕후>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물린 이후에도 명종의 뒤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

사하여, 조선의 측천무후, 철의 여인 등 현세에 와서 수많은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정계와 학계에서는 위 사신의 기록과 같이 문정왕후가 여인으로서 이렇게 조정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다. 그들의 불만의 일부는 승유억불의 시대에 그녀가 펼친 불교 중흥정책을 향하고 있기도 하다.

<보우와 부활하는 불교>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도첩제를 실시하여 승려를 뽑고 전국 300여 개의 절을 공인하는 등 당시의 유교지향정책을 무시하고 불교 중흥을 도모하였다. 양주 회암사에 있던 승려 보우를 맞아들여 봉은사(奉恩寺) 주지로 임명하고 훗날 중종과 함께 문힐 요량으로 봉은사 근처(정릉)에 중종의 능을 전장하기도 하였다. 폐지되었던 승과를 부활시켰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불교 교단은 활기를 띠고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산 속으로 숨어버린 조선의 불교>

유생들은 문정왕후의 불교 중흥 노력에 심한 반발을 시작했다. 각지에서 보우를 타도하라는 상소와 종단 및 승과 폐지의 상소가 빗발쳤다. 요승 보우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못해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우는 집단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불교 중흥 정책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그녀의 지원을 받은 보우는 도대선사가 되었다. 그러나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성난 유생들은 회암사로 몰려가 불상의 목을 자르고 절을 불질러 버렸다. 명종 역시 문정왕후의 불교를 중흥하라는 유언을 무시하고 깊은 산 절로 도망친 보우를 체포하였다. 전국에서 보우를 처형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하였고, 율곡 이이 등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명종은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 보우는 이곳에서 험악한 여론을 살피던 제주목사 변협에 의해 결국 살해당했다.

4. 대행대왕대비행적

《明宗實錄》卷31, 明宗 20年 4月 10日(丙子)

大行大王大妃 天質英明 聖度剛正 博覽學問 閨門有法 內庭嚴肅 雖一品駙馬 狂悖得罪 則黜外不惜【此蓋指 靈川尉 申穰 安置事也】 人莫不服 自丁丑年冊封之後 配先考三十年 克遵婦道 終始誠敬 待仁廟 亦盡和意 雖或有姦凶交亂之言 能爲鎮靜 接宮嬪 合於情禮 甲辰冬 中廟 賓天之後 哀毀過禮 乙巳 仁廟賓天 痛悼亦切 當寡躬嗣服之初 三兇【尹任 柳灌 柳仁淑】罪惡漸極 御景福宮 忠順堂 垂簾議于公卿 克除姦凶 再安宗社 初上聖烈徽號 加上仁明二字 攝政九載 政治清明 癸丑流火之月 歸政于寡躬 常時每教寡躬 以辨賢邪 抑貪風 去民瘼 安國家 諄諄不已 癸丑暮秋 景福宮 災 欽賜誥命 竝被燒燼 戊午年 遣使奏請 皇帝卽允 順付再下 慮僧徒無統 議大臣 復立兩宗【大臣 沈連源 尙震也。○當垂簾發政之日 議復立兩宗之事 阿諛不達 而無一言面諫其不可 至於下問之際 正值納約之時 而震也非徒不進言 又從以悞順之辭 遂復禪科】 念中廟 靖陵之兆 似不盡美 壬戌之秋 遷卜于宣陵之旁 癸亥九月 驚慟 順懷之變 初冬移御于昌德宮東宮 自甲子年 寡躬多疾 以誠護養 仰賴罔極之恩 今年暮春 偶因感冒之證 日漸彌留 百藥不效 孟夏初七 移御于昌德宮別堂 巳時昇遐 春秋六十五 嗚呼 痛哉 仍傳于政院曰 罔極之中 心緒茫茫 文似煩亂 製誌者 可改成也 此外 朝廷若有聞見之事 亦當書示于製誌官

5. 태릉표석음기

朝鮮國

文定王后泰陵

聖烈仁明文定王后尹氏 中宗大王繼妃 弘治十四年辛酉十月二十二日誕生 正德十二年丁丑冊封王妃 嘉靖四十四年乙丑四月七日昇遐 七月十五日葬于楊州南蘆原面 壬坐之原 壽六十五

여 백

강릉(康陵)

1. 연혁

능 주 : 명종[1534~1567]과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1532~1575]

위 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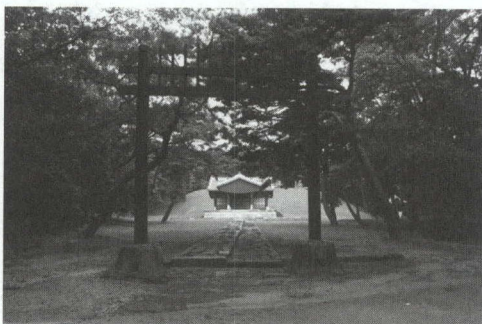
봉릉연대 : 1567년(선조 1)

전릉연대 :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이 교차되고 있는 태릉 입구역에 내려 버스를 갈아 타고 육군사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를 지나 태릉선수촌 방향으로 가다 보면 태강릉에 도착할 수 있다. 능역 안으로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것이 중종의 세 번째 부인 문정왕후의 무덤인 태릉이고, 태릉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문정왕후의 아들이며 조선왕조 제13대 임금 명종의 무덤인 강릉이 위



강릉 전경

치하고 있다. 현재 태강릉 능역 안에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009년 7월 완공 목표로 ,태강릉전시관.이 공사중에 있다. 이 전시관은 조선왕릉의 조성과정과 당시 국장 절차 등을 전시하게 될 예정이다.

강릉은 조선 13대 임금인 명종과 왕비 인순왕후 심씨의 능이다. 한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히 마련하여 쌍릉으로 조영하였다, 태릉과 마찬가지로 병풍석을 두르고 12칸의 난간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병풍석에는 십이 지신상이 새겨져 있으며, 만석에 다시 십이간지를 문자로 새겼다.

진입공간에 금천교가 남아 있으며 정자각 왼편 계류에는 보면 둥근 어정(御井)이 있다. 어정이란 왕이 왕래할 때 마실 물을 마시거나 제례시를 위해 판 우물을 말한다. 광릉, 송릉 등지에서도 이를 볼 수 있으나 강릉의 것이 원형에 가깝다.

강릉의 문석인은 신체 대비 머리의 비례가 크고, 목이 짧게 조각되었다. 복두를 쓰고 관복을 걸친 관료의 차림을 하고 있다. 무석인은 왼편과 오른편의 조각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오른쪽은 투구가 작고 가슴 전면에 파도 문양이 조각된 반면, 왼쪽 무석인은 팔꿈치에 구름 문양, 등 위와 무릎 부



강릉 정자각



강릉 원경

분에 비늘 문양을 새기고 있다.

명종은 유일한 아들이었던 순회세자를 이룬 나이에 잃고, 2년 후에는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여의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워낙 병약했던 명종은 세자와 모후를 잃은 허탈감에 마음의 병까지 더하여 34세의 나이로

1567년(선조 즉위) 6월 28일 경복궁 양심당에서 승하하였다. 묘호를 명종, 능호를 강릉으로 정한 후 같은 해 9월 22일 태릉 동쪽 언덕에 안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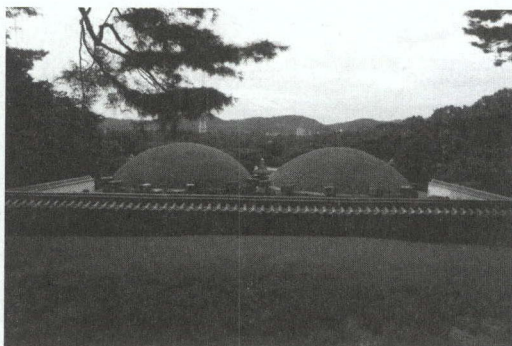
그로부터 다시 8년 후인 1575년(선조 8) 1월 2일 44세를 맞은 명종의 비 인순왕후가 승하하였다. 선조는 시호와 존호를 올리고 그 해 4월 28일 명종 왕릉인 강릉에 쌍릉으로 왕비릉을 조성하였다.

3. 능주 소개

강릉에 모셔진 명종(1545~1567 재위)은 중종의 둘째 아들로써 인종의 이복동생으로 중종 29년(1534) 5월 22일 탄생하였으며 휘(諱)가 환(峴)이고 자(字)는 대양(對陽)이며 어머니는 문정왕후 윤씨이다. 인종 원년(1545) 유명(遺命)으로 왕위를 이어받아 이



강릉 근경



뒤에서 바라 본 강릉

해 7월 6일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즉위하니 춘추 12세로 어려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8년간 수렴청정 하였다. 왕후의 동생인 윤원형(尹元衡) 일파가 집권하면서 왕권이 떨어지고 외척일족의 수탈로 민생이 파폐해지고 민

심이 흉흉하여 임거정(林巨正)과 같은 도적이 나타났다. 문정왕후 승하 후 척신정치(戚臣政治)의 폐해를 없애고자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선정(善政)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뜻을 펴지 못한 채 명종 22년(1567) 6월 28일 경복궁 양심당(養心堂)에서 승하하니 재위 22년이었고 춘추 34세였다. 선조 즉위년(1567) 7월 묘호(廟號)를 명종이라 하고, 무덤의 이름을 강릉이라 하여 9월에 양주 노원면 대방리 금산(金山)의 언덕에 장례지냈다.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 심씨(1532~1575)는 본관이 청송(靑松)으로 영돈녕부사 청릉부원군 심강(靑陵府院君 沈綱)의 딸로서 중종 27년(1532) 5월 25일 탄생하였으며, 명종 즉위년(1545)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1551년(명종 6) 6월 5일에는 원자를 낳았고, 1557년(명종 12) 12월 8일 원자가 5세에 이르자 세자에 책봉되었다. 원자는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서 다섯 살인데도 영명하고 슬기로움이 이미 나타났으니 실로 종사의 한없는 경사라고 칭할 정도였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순회세자는 1563년(명종 18) 9월 13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지 4년 후에는 남편인 명종도 승하하였다.

명종 22년(1567) 선조가 즉위하였으나 어려서 이듬해까지 수렴청정하였

으나 1568년(선조 1) 7월에 선조가 친정을 하도록 물러나 주었다. 선조 8년(1575) 1월 2일 창경궁 통명전(通明殿)에서 승하하니 춘추 44세였고, 시호를 인순(仁順)이라 하였고 4월에 강릉 동쪽에 장례 지냈다.

<인순왕후와 관련된 일화>

왕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미처 정하지 못하고 승하하면,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의 결정권은 형식적으로나마 대비에게로 이양된다. 대비는 사적으로는 새로 왕이 될 자의 어머니이며, 선왕의 부인이다. 비록 남편이 죽고 없지만 대비는 국모로서의 권한과 함께 왕실의 최고 어른이라는 지위를 갖는 것이다.

인순왕후는 명종이 임종을 맞을 당시 양심당의 소침 병풍 뒤에서 명종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다. 명종과 인순왕후 둘 사이에는 아들 순회세자가 요절한 탓에 명종의 뒤를 이을 자가 없었다. 그러나 생전에 명종은 자신의 이복형인 덕흥군(중종과 후궁 창빈 안씨 사이의 아들)의 아들 하성군을 의중에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명종의 의중을 알고 있었던 인순왕후는 당시 16세이던 하성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가 조선의 14대 왕 선조이다.

4. 강릉표석음기

朝鮮國

明宗大王康陵

仁順王后祔左

明宗恭憲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 嘉靖十三年甲午五月二十二日誕生 己亥封慶原大君 乙巳卽位 隆慶元年丁卯六月二十八日昇遐 九月二十二日葬于楊州泰陵東岡亥坐之原 在位二十二年 壽三十四 皇朝賜諡恭憲 妃宣烈懿聖仁順王后沈氏 嘉靖十一年壬辰誕生 初封府夫人 乙巳進封王妃 萬曆三年乙亥正月二日昇遐 四月二十八日 葬與大王陵同原 壽四十四

5. 명종대왕 행장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48, 行狀 明宗大王行狀

國王姓李氏 名 字 恭僖王之次子 母妃 尹氏 初 恭僖王元妃尹氏 既誕 榮靖王而薨 又納尹氏爲繼妃 領敦寧府事坡山君之任之女也 以嘉靖甲午五月二十二日生王 王生而穎秀 不妄嬉戲 明悟善學 恭僖王稱愛之 封爲慶原君 嘉靖二十四年乙巳七月 榮靖王疾大漸 召大臣入臥內 教曰 予疾殆 將不興 予無嗣子 先父王嫡子 惟我與慶原君二人而已 諱雖年幼 聰睿夙成 可付後事 卿等其共輔立之 王薨 大臣奉遺命 請王權署國事 遣陪臣宋璵等 告訃于朝 且請承襲 是年十二月 世宗皇帝賜制曰 子承父業 是爲人道之常 弟紹兄封 允合天倫之正 肆彝章之具在 斯渙命之有加 咨爾朝鮮權署國事李諱 世居海嶠 裔出王家 習尚每嗜乎詩書 風教素承乎禮義 念國王之嗣絕 宜茅土之爾歸 揆諸世次以當承 參之輿情而允協 爰降絲綸之重 俾膺圭爵之榮 茲特封爾爲朝鮮國王 錫之誥命 繼守舊封 思續前人之緒 寵頒新渥 益增藩服之光 無忘北闕之恩 永作東方之翰 又勅曰 爾兄王諱 於嘉靖二十四年七月初一日 薨逝無嗣 爾既系王親弟 理宜承襲 茲特遣內官監太監聶寶充正使 郭鑾充副使 齎詔示爾國人 封爾爲朝鮮國王

繼理國政 爾宜服膺君命 圖紹先業 秉猶循義 保國安人 爲中夏藩垣之臣 并封爾妻沈氏爲王妃 及頒賜爾及妃誥命冕服冠服綵幣等件 至其欽承 王卽遣陪 臣右議政林百齡 奉表陳謝 王時年十二 禮接詔使 無違度 廷臣咸以爲王方幼冲 學問最急 卒哭前 請開書筵 王爲榮靖王 居喪以禮 猶日與儒臣 講讀不輟 左贊成李彥迪 書進先儒格論 且勉以勤學問 敬大臣 納諫諍 近正人 遠邪佞 畏天命 恤民隱等事 王謹受而思服焉 二十五年夏 大臣以盛暑 請停書筵 王不聽 首罷異物無名之進 蠲窮民積年之逋 下教禮曹曰 近來教導未至 風俗澆薄 不孝不友不嫺不睦之法 自有國典 而閭閻之人 不聞不學 蠢愚無知 妄行非義 以觸罪辜 良用惻然 據古彝倫之教 參酌國法 作爲教目 廣布中外 使窮鄉僻巷之人 無不周知 如有違者 嚴加責罰 以淑人心 以正風俗 講官以無逸并抑詩進戒則曰 索於內藏 得先朝舊案上寫無逸篇 已備觀省 其作屏 寫抑詩以來 二十六年 僕臣因輪對 請買馬於他境 弘文館舉先朝禁買之事 且書周書旅獒 罔命二篇以進戒 王欣然嘉納 是時 水旱荐臻 連歲飢疫 王爲之憂懼惻惻 不遑寢食 省咎責躬 求言補闕 督 令內外官吏修舉荒政 至於放租弛禁 移粟納穀 勸分收棄之類 靡不究心 病者捋之 死者瘞之 謂大臣曰 爲人君者 聞百姓飢死 不急賑救 則安有視民如傷之意乎 予今晝夜憂慮 罔知攸濟 卿等亦宜商議善處之 謂民生休戚 係于守令 每令銓曹 擇人以授 于時有吏犯贓 王曰 先王朝 贓法甚嚴 今則不然 貪風日熾 民受其害 事露者 不可不痛繩以律 二十九年 因慶尙道觀察使啓請 頒降內藏書籍于豐基郡白雲洞書院 賜額褒美 後又命名道 有書院處 咸加勸獎 書院之作 由是盛焉 三十一年 命選朝紳之素稱廉謹者 賜宴于宮庭 舉遺逸 得成守琛等五人 皆敍六品職 書筵講大學衍義 至讒邪之臣殺忠良以資敵國 而庸君闇主一不之察 慨然嘆息 因論唐僖宗殺諫臣事曰 興國之君 樂聞其過 亡國之君 惡聞其過 直諫

者死 奚以不亡 講近思錄 深有味於養知莫過於寡欲之言曰 此與養心莫善於寡欲 語意相符 其沈潛學問 類如此 三十二年冬 擒獲漂流倭賊 遣使以獻 皇帝降勅諭曰 邇者 倭夷侵擾海陬 屢該南直隸湖江等處鎮巡官奏聞 已命督兵 驅逐出境 其餘寇奔逸 方行沿海地方 嚴加戒備 茲王奏稱陪臣賀節回國 傳聞倭逆搶攘 即便整擄兵船 預肅堤防 及擒獲漂流餘檣銃牌等器 差賀至陪臣李澤等 管押解獻 且見王奉藩忠赤 朕甚嘉悅 特降勅褒諭 仍賜白金紋錦綵段 以答忠勞 三十三年 賜酒于學宮 教曰 學校 風化之原 首善之地 近來 學校陵夷 是雖上不能鼓舞振作之致 師生之習 亦爲偷靡 惟爾師長學子 各勉授受 以副 予樂育英才之意 又曰 人之爲學 莫切於小學 而近廢不讀 惑莫甚焉 其令禮曹 申諭勸勉 使人人樂學以敦根本 教于八道觀察使 各其地方如有孝子烈女 廣聞馳啓 又謂侍臣曰 孝行節義 所當崇獎 故搜訪之意 已下于各道矣 人皆以節義爲貴 則於爲國乎 所關豈小哉 仍下當代三綱錄于政院 令印布中外 三十四年 旱災切迫 王於禁中親禱得雨 如是者再 教銓曹曰 爲政之道 莫如得人 若不得人 如爲國何 惟爾該曹 更加慎擇 參諸物論 守令則用慈祥 愷悌者 學官則用學問該博者 且孝友廉謹節義之士及清白吏子孫 交獎陞遷 三十五年 視學坐明倫堂 以手筆諭之曰 予以涼德 叨主臣民 雖不及文王作人之美 豈無唐宗崇學之志乎 留意學校 欲使人才蔚然而出 歲月逾邁 迨不見效 是乃予作成之誠未至而然也 學貴務本 常顧堂名 以忠孝爲本 皆爲他日君子儒 是予之望也 謂書筵官曰 人非聖人 誰能無過 知過必改則善矣 又教曰 爲囚求生道 此仁政之一端也 予念外方獄事 許多縲紲之中 豈無 冤枉之淹滯 況今沍寒陽生之月乎 其令八道司獄 務速決放 如有疑獄 詳覈馳啓 三十六年四月 皇帝勅諭曰 近該王奏倭寇被風漂流船隻 至王國境內 觀察使李潤慶等 乃能督兵擒捕 內有中國被擄人民 令陪臣沈通源等管押前來 且見王奉藩

忠順 朕用嘉悅 茲特降勅獎諭 仍賜白金綵段 以答忠勞 王以適子頃年已七歲 宜早定國嗣 乃遣陪臣李名珪等請命于朝 三十七年正月 皇帝降勅曰 朕惟立長繼序 古之制也 凡有爵土者 罔不豫定 以 係羣情之望 近得王奏 本國臣民議欲立王嫡長子頃爲世子 王不敢專 請命于朝 且見王恪守忠敬 事下該部查覆 特賜俞允 茲命太監王本爲正使 趙芬爲副使 齎勅并紵絲紗羅等件 封頃爲朝鮮國王世子 夫藩國之職 莫善於秉猶遵義輸忠效誠 王自上世以來 循行已久 今旣立世子 王宜明示此訓 俾率由罔替 世享有邦 庶不負朕命 無忝前人 初 國祖康獻王 被本國叛賊尹彝 李初誣告于中朝 稱爲逆臣李仁任之後 皇明祖訓及大明會典 俱錄其語 自王六代祖恭定王及父恭僖王時 累嘗控訴辨誣 每訴輒蒙許改 而所改之詞 尙未昭示 及王嗣服 當嘉靖三十六年 遣陪臣趙士秀陳乞 得旨如前 至四十二年 差陪臣金澍具實封奏本 辨訴益力 是年十月 皇帝勅諭曰 朕惟體臣柔遠 帝王御世之經 邇本明宗 子孫光前之孝 咨爾朝鮮國王諱 世篤恭順 作朕東藩 屢以祖系 陳乞釐正 蓋恥蒙詬訾 而急於昭雪 情見于辭 朕特允爾所奏 宣付史館 因會典之舊文 載爾祖之眞派 滌瑕傳信 炳如日星 朝廷與爾國 皆知出於李子春而不出於李仁任也 是一以安爾祖於既往 一以慰爾望於斯今 於爾國不有榮施哉 於戲 錫類正名 旣已成爾之孝 紹先謹度 益當竭爾之忠 四十四年四月 母妃尹氏寢疾 王藥物必嘗以進 祈禱無所不至 及薨 王執喪外閤 哀戚備盡 九月 王遇疾危劇 王世子頃 先二年而殂逝 國人咸憂恐 大臣亟以建儲爲請 王妃以王命 下一封書于大臣 密定儲嗣 實王庶兄故德興君峇子河城君舊諱也 已而王疾乃瘳 命 別擇儒士 爲師傅教誨之 數召入 講問所學 親愛有加 四十五年六月 召經明行修之士李恆等及徵士曹植 其人或有病不能赴召者 遣醫藥致懇敦諭 前後至者輒延見 虛心訪咨 備見嘉尙之意 命超授內外職 有以白衣陞至四品者 復追贈徵士成守琛 徐

敬德職 十月 因災異下手教曰 天人一理 顯微無間 人事失於下 天變應於上 予以否德 叨承丕緒 慄慄危懼廿有餘年 而衆災疊現 乃於十月既望 燁燁震電 有同夏月 又有開花結實之異 陰陽 失序 寒暑反常 又於小雪前宵 雪裏雷鳴 上懼譴告之切 下愧疵政之多 豈無致災之由 盍盡消弭之方 予念君心萬化之原 而心有所未正歟 王朝四方之本 而政有所未清歟 用人雖慎擇 而賢或有遺者歟 苞苴雖禁斷 而賄尚有行者歟 赤子困窮 而字撫失其宜歟 軍卒疲弊 而捋恤未能盡歟 邊圉虛疎 而備禦或有闕歟 賞罰僭濫 而功罪或未辨歟 賦役不均 而民怨有鬱塞歟 風俗不美 而綱常有倒置歟 言路或未通 而納諫有未快歟 誠恐危亡之禍迫在朝夕 而予之寡昧 邈焉不逮 公卿大夫 閭巷草野之間 必有深知矯弊之策者 各以所懷 盡陳無隱 冀聞不諱之言 用答仁愛之譴 閏月 領議政李浚慶上疏 極陳時政闕失 且請建儲 蓋前雖有命 未有名號故也 答曰 予以否德 遇災修省 方切求言之時 卿以首相 進藥石之言 予嘉卿愛君憂國之誠也 儲副久虛 予爲宗社 豈不深念哉 丁卯正月 謝恩使尹玉等 馳狀報皇上諱音 王卽日 率羣臣力疾舉哀 卽差陪臣宋贊陳慰使 鄭宗榮進香使 又差右議政權 轍 賀登極使遣之 夏六月 母妃三年喪畢 追慕益切 猶不御華美之服 王自居憂 恆有羸疾 至是 翰林院檢討官許國兵科左給事中魏時亮 奉詔勅且至 王於迎接大禮 惟恐有失 虞度方深 又時當盛暑 大臣慮王因勞致傷 勸勿躬行祔祭 王曰 宗廟祔享 至重之禮 予非甚病 何忍付有司攝行 再請 曰 予與其不祭而心勞病重 孰與親行而身勞病輕乎 遂力而行之 因勞熱馴致疾革 是月二十八日 辛亥 薨于景福宮之正寢 享年三十四 在位二十二年 是日曉 王妃申乙丑年之命 令大臣奉迎河城君今諱入主喪 權署國事 王孝友聰明 恭儉勤懇 事大之誠 出於至性 凡修聘接使之際 致謹于書禮 役志于享物 必極其忠敬 於皇朝吉凶之事 慶戚之情 如不違咫尺焉 上國人民 自虜中逃來 解送

共一千二百十六名 漂流人刷還六百五十四名 必皆厚給衣糧 期得全活 王常念付畀之重 恐不克負荷 廟社之禮 嚴畏如臨 先王之法 遵守勿替 當在冲年 母妃嘗同聽斷 未幾還政 王奉 事承顏養志 委曲盡意 三時問安 出告反面 自始至終 未嘗少懈 王於榮靖王 有繼序之重 因心之友 義所彌隆 其事王妃朴氏 如事母妃 妃嘗有疾 其於醫禱之外 所以因事慰安之者 有足以感動幽明者 已而 妃疾良已 宗室諸親 恩施有差 其最親者 時召入內 與之歡洽如家人禮 倚任輔相 有事必咨 重待臺諫 言必嘉納 凡聲色遊畋之娛 一無所好 燕寢左右 書清心寡欲 明目達聰 誠敬和勤 好賢樂道等語 以自警 夙興夜寐 垂意庶務 有暇則繙閱 經史 條然端坐 日以爲常 雖遇體倦 未嘗跛倚 大臣嘗入問疾 衣帶必飭 左右請仍便服 不許 後宮宦侍 不與之親暱 如有罪戾 不少容貸 或付諸有司而論如法 勵精圖治 惟日孜孜 崇儒雅而喜文學 尙風化而重節義 暇日 屢引諸學士 讌語從容 揚摧古今 兼試文藝 寵渥優異 或召儒生於便殿 講論經義 優者 賜出身以獎成之 遇災恐懼 必引己之愆尤 臨民惻怛 如親手而撫摩 欽恤刑獄 而痛繩濫刑之吏 軫撫軍卒 而屢褒撫軍之將 法所當加 無撓於勳戚 之負犯 害所當去 益決於異教之滋蔓 中外章疏 或有訐激 未嘗加罪 大小官司 少有欺蔽 未嘗不覺 願治之意 守成之規 可法可傳 四方無虞 民不見兵革 雖南倭北狄 猶知怛威而赧德 雖古稱賢明之主 亦無是過 而憂勞成疾 奄忽薨逝 一國臣民之痛 曷有窮哉

여 백

의릉(懿陵)

1. 연혁

능 주 : 경종[1688~1724]과 선의왕후(宣懿王后)[1705~1730] 어씨

위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4호

봉릉연대 : 1724년(영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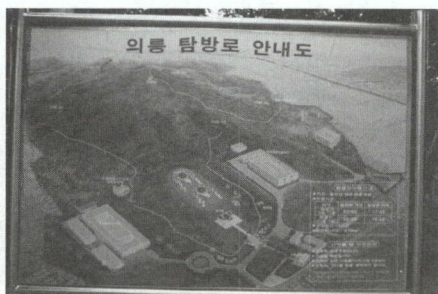
전릉연대 :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지하철 1호선 이문역이나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로 가면 캠퍼스 뒤편에 위치한 의릉을 만날 수 있다.

의릉은 조선 20대 경종(재위 1720~1724)과 그의 비인 선의왕후의 무덤이다. 경종은 희빈장씨의 소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여 왕위에 오른지 4년만에 세상을 떠났다.



의릉 안내도

일반적으로 쌍릉은 좌·우로 조성하지만 이 무덤은 앞·뒤로 무덤을 조성한 상하이봉릉(上下異封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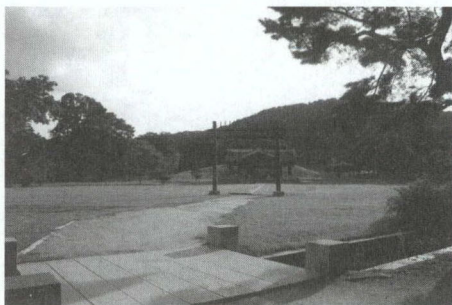
위쪽에 있는 경종의 능침에만 곡장을 돌렸고, 왕릉과 왕후릉 모두 혼유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석물은 별도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 양

식은 능혈의 폭이 좁아 왕성한 생기가 흐르는 정혈(正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풍수지리적 이유이며 자연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능원을 조성하려는 우리 민족만의 자연관을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능묘 조각들은 규모가 작고 왜소한 편이다. 봉분에는 난간석을 설치하였으며, 난간 석주에 방위를 나타내는 십이지를 문자로 간략히 새겨 넣었다. 망주석 세호는 모두 위를 향해 기어오르게 조각되어 있다. 장명등은 지붕이 4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숙종대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식으로 건원릉부터 나타난 8각등에 비해 한결 간략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을 준다.

문무인석은 전체적으로 4등신의 땅딸막한 비례에 움츠러든 어깨가 경직된 느낌이다. 갑옷을 걸치고 장검을 두 손으로 힘차게 짚고 있는 무인석의 뒷면에는 짐승 가죽을 나타내기 위해 꼬리가 말린 것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왕후릉은 왕릉과 마찬가지로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으로 봉분을 호위하고 있으며, 석물들의 배치 또한 왕릉과 같은 형식이다.



의릉 전경



의릉(경종)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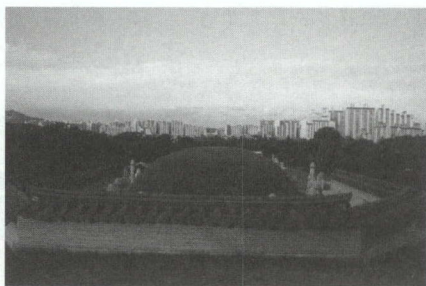
1724년(경종 4) 8월 25일 경종이 창경궁 환취정에서 승하하자 같은 해 12월 16일 양주 중량포의 천장산 기슭 언덕에 예장하고 능의 이름을 의릉이라 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 1730년(영조 6) 6월 29일 경덕궁 어조당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계비 선

의왕후가 승하하자 같은 해 10월 19일 경종 왕릉 아래에 능을 조영하였다.

사적 204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나 1960년대 초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의릉 경역 내에 자리잡았던 탓에 일반인에게는 철저히 봉쇄된 구역이었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는 등 훼손이 심해 궁궐의 후원처럼 변모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중앙정보부가 이사가면서 1996년 5월 1일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되었다.

3. 능주 소개

경종(景宗 ; 1688~1724, 재위기간 : 1720~1724)은 1688년(숙종 14) 10월 27일 숙종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나인 출신의 희빈 장씨이다. 숙종은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등 세 명의 왕비가 있었으나 그들에게서 아들이 없어 1690년(숙종 16) 당시 3세였던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기에 이르렀다.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는 인현왕후가 폐출되자 왕후가 되었다가 1701년(숙종 27) 죽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무



뒤에서 바라본 의릉(경종)

고의 옥' 사건으로 사사되는 일이 있었다. 이 때 경종의 나이 14세였다.

그 뒤로 경종은 병약하여, 세자로 있으면서 그의 이복동생 연잉군(훗날 영조)가 대신하여 세자대리청정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720년 6월 13일 경덕궁 승정문에서 33세의

나으로 즉위하였으나 재위 4년간의 재위시절에도 신하들의 당쟁에 시달려 재위기간 뚜렷한 치적을 남기지 못했다. 1724년(경종 4) 8월 25일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창경궁에서 승하하였다.

1721년(경종 즉위)과 1722년(경종 2) 신축, 임인 두 해에 걸쳐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큰 옥사가 일어났는데 이를 신임사화라고 한다.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승하하자, 세자였던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받으며 3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당시는 노론과 소론의 위험한 당쟁이 계속되던 때였는데, 당시 노론의 4대신인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종추부사 이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가 중심이 되어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훗날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소론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1721년(경종 즉위) 8월 이를 허락하였다. 그러자 노론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종을 두고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소론의 대립은 격화되었고, 결국 세제의 대



앞에서 본 의릉(선의왕후)



뒤에서 바라본 의릉(선의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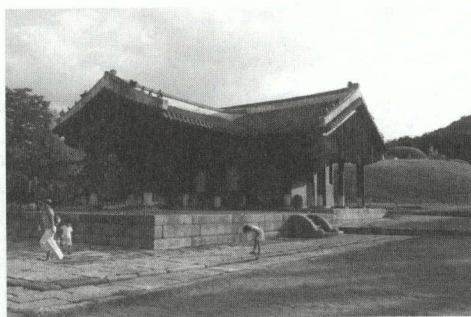
파를 제거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론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지만,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조정에는 또 한 차례의 숙청의 바람이 불게 된다.

한편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 1705~1730)는 1705년(숙종 31) 10월 29일 함원부원군 어유구의 딸로 태어났다. 경종이 세자 시절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단의왕후가 병을 앓다가 1718년(숙종 44) 승하하자, 같은 해 9월 13일 세자빈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720년 6월 13일 경종이 즉위함에 따라 왕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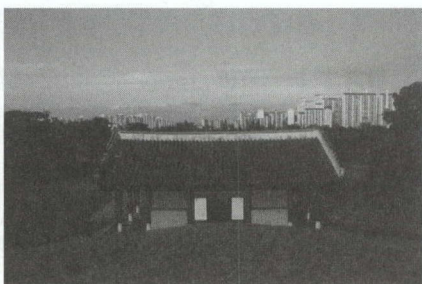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온유한 성품을 지녔다고 한다. 선의왕후는 1724년 경종이 승하하자 왕대비에 올랐다가 1730년(영조 6) 6월 29일 경덕궁 어조당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소생없이 승하하였다.

선의왕후와 경종의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다. 경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둘 희망이 없다고 여겨

리청정을 주장한 노론 4대신들은 파직 후 유배를 당하였다. 그 뒤에도 소론 강경파들은 노론의 숙청을 요구하였다. 1722년(경종 2)에는 노론측이 세자 시절에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고변을 기점으로 노론 4대신을 사사하며 수백 명의 노론



의릉 정자각



능상에서 본 정자각

진 선의왕후는 종친 중 어린 아이를 입양하여 후사를 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경종비를 중심으로 한 궁중의 일각에서는 소현세자의 후손인 밀풍군의 아들 관석을 입양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종 즉위 1년 만인 1721년 8월의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이 세제로 책봉되었다.

경종이 아무리 병약하다고는 하나 즉위 1년 후 세제를 책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노론은 소론과의 알력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제 책봉 뿐 아니라 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주장하였고, 계속적인 당쟁과 숙청의 바람을 몰고 왔다. 이러한 어지러운 정국의 한 가운데에, 결국 선의왕후의 양자 입양은 무산되었다.

4. 의릉지

《景宗實錄》附錄 景宗大王墓誌文

於戲 洪惟我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 姓 李氏 諱【昀】字【輝瑞】
肅宗大王之長子 顯宗大王之孫也 始 肅宗 久無嗣爲憂 嬪 張氏 以戊辰
十月二十八日誕王 肅宗 喜甚 召諸大臣謂曰 國本未定 人心靡係 今日大
計 不在他也 遂定號元子 三歲 封王世子 四歲始學 千字文 肅宗 親製序
以授之曰 儲宮方講習是書 性既聰朗 心智日長 加意學問 正在匪遠 仁顯
王后 子之 如漢 明德后 故事 慈孝俱甚篤 八歲行入學禮 周旋中節 講音

洪亮 園橋人士 莫不相慶 是歲行冠禮 謁太廟 隨大駕 拜 永禧殿 晬容謁 永昭殿 仍命師傅 賓客與春坊僚屬 日入宵筵 遍講 孝經 小學 三綱行實 等書 講官師傅 請見心畫 大書孝悌忠信 禮義廉恥 敬以直內 義以方外等字 與之 臣僚傳玩 自是 學問日益進 臨筵問難 出人意表 嘗問 伊尹放 太甲 於桐 終不改過則如何 又問序曰 無忝人之名 名字何義 又問史丹 伏青蒲 基 王氏之禍 疏廣 疏受 見幾而作 由是論之 史丹 不如 廣受 乎 若此者多 雖自謂老師宿儒 皆歎其天縱不可及 講官嘗問 孟子 七篇 於何尤着力乎 答曰 自 梁惠王 至 盡心 無非闡明義理 夫豈拈出某處尤爲着力乎 又問自期如何 答曰 非曰能之 乃所願 則 舜 何人也 予何人也 辛巳 仁顯王后 昇遐 殯殮攀擗 哀動傍人 至發柩時 奉辭路次 久立哀慟 返虞日 出郊陪還 哭不絕聲 道路觀者皆悅 歲乙酉 卽 肅廟 卽位之三十一年也 王三上疏 請稱慶 有曰 於前史有可據之文 在今日爲必行之禮 肅宗答曰 疏辭雖出人子之至情 顧予何心 作此豫大之事乎 時 肅宗 以好學勤政 積勞成疾 思就閑調養 是年十月 有禪位之命 王驚惶罔措 連章固辭 召宮僚諭之曰 達夜泣請 終不得回天 伏閣陳懇之外 更無他道 將出閣門 時 天寒大雪 令去惟幕 肅宗曰 爾之情事 不可不念 遂勉從焉 後十二年丁酉 肅宗 以五載沈綿 酬應漸難 依國朝故事 令王聽政代理 王又懇辭 不獲命 且以替勞之義 黽勉承命 群臣入朝稱賀 特令停鼓吹 裁減庶務 咸當於理 然皆一一上稟而後行 如史官傳批 亦詢政院 示不敢專也 首春下諭八路 勸農桑 百姓餓者 賑貸之 疾疫死者 收瘞之 每於諸路監司之辭去 輒召見勅勵 俾嚴黜陟 寒暑遣近侍 審獄放輕囚 宮牆頽圯 有潛入者 以無情而原之 刑曹據邀截公文律 論裂破書啓人罪至死 特以一罪不可用 比律減死焉 遇臣僚以禮待 宗親以恩 大臣歿 則必設次而哭 宗臣之喪 亦官庀喪葬 竝令仍給祿 以終三年 王弟 延齡君 田 蚤卒 王自製文以祭 有曰

呼之不應 漠漠無聲 已矣於世 空想形儀 居諸如流 卽山有期 衿陽一夕 月色千秋 實情到之辭也 肅宗 違豫積十數年 王侍湯憂灼 始終如一 嘗移御 慶德宮 王隨往 禮當祇迎坤殿 語宮官曰 聖候未寧 異於他時 我當先入面候 卽入闕問候 還出祇迎 倉卒周旋 允合情禮 左右相顧欽頌 及行幸溫泉 留王監國 王祇送于江頭 羽旄旣遠 猶竚立瞻望 隹憂形於外 都人觀者 皆嗟歎 庚子 肅宗 疾大漸 王涕泣皇皇 命禱廟社 山川 逮奉諱 禮官進嗣位節目 答曰 天崩罔極之中 乃見此 人子情理 豈忍是哉 百僚連日齋籲 始以上承慈教 勉許焉 王旣受寶踐阼 凡政令施措 一視代理時 而尤以開言路恤民隱 爲先務 至辛丑 王以未有嗣續 國勢孤危 冊封我殿下爲王世弟 所以重宗廟社稷也 世弟五上章固辭 王賜答慰諭 勉之曰 小心翼翼 勤勤孜孜 以副國人之望 時 王上奉 惠順 大(妣)[妃] 思盡養志之孝 景福堂 在 萬壽殿 舊基 王預爲之修營 不煩有司 易其扁曰 景福殿 及壬寅去喪 奉大妃移御 且欲一設宴上壽 而母妃不欲 則不敢強 徐復乘間言 屢而後得請 以至供獻之物 母妃念民力欲減 則亦承順行之 不久又開陳而復舊焉 嘗推老老之恩 民有高年者 必惠養而且賜之爵 麗 祖墓 儀物有缺 則命守臣改之 新羅 王廟 祀饗不虔 則官其孫奉之 祭 鄭夢周 之祠 錄 金宗瑞 之後 一日 王下教于政院曰 一自嗣位以後 觀朝臣之所爲 少無輔護國家之事 言念時事 不覺痛惋 仍命黜三司諸臣 奪將臣之符 遞相臣之職 竝行竄逐 俄而變書上 告將相謀不軌 王命有司 悉按驗誅討 嘗久旱 親禱社壇 却輦乘小輿 烈日下曝 侍臣迭諫 世弟亦懇請 終不聽 徹夜露禱罷還 仍坐殿錄囚 猶不雨 又禱于郊壇 得雨後已 翌年旱 又親禱于社壇 農壇 疏罪囚避正殿 減膳撤樂 至秋乃復 每謁太廟 雖雨雪不止 祧廟在後稍遠 而必步進 嘗於 孝寧殿 練祭改題主時 北向拱立 侍臣以時刻稍久 請俯伏不應 其敬謹如此 命立私親廟 定祝號 祭式 自王登極後 更來言追報事者

多涉越分 不惟不之採 輒斥遠之 及大臣禮官 裁酌而請之 乃從焉 王於爵賞 務愼惜 必遵舊例 罔及私昵 廟堂薦剡外 以三司擢承宣者 終王之世 亦不過若而人 王每以黨論爲深憂 凡章疏之涉於相排軋者 率以靜鎮爲務 略不示左右 嘗因旱求言 教曰 黨禍之禍 可勝言哉 甚至於一室之間 干戈相尋 噫嘻 情志之阻隔 胡至此極 卿等俱以世祿之臣 義同休戚 值此板蕩之秋 殫竭心力 夾輔王室 以慰祖宗陟降之靈 則乃祖乃先 必致悅豫 豈不竝受其福乎 廷臣相與言曰 承此教 而爲黨論 我卽匪人 王性沈重寡言笑 接待臣隣 顏色溫然 而望之自然有敬畏之心 尤嚴於隄防 近昵有不佞者 痛誅 絕不少饒 宮禁肅如也 停良家女選充宮人之令 革貢物人科外責應之弊 諸路菑荒 則蠲常稅 西邑凋弊 則減田租 發常平之藏 俾糴都民 捐籍罪之產 以填畿賦 凡諸司 各營置差設舖 射利害民者 一切罷去 命卿宰侍從 諸路使臣 薦進學行 才局 智略人 且以法久弊生 命輔臣商確 方欲大究軍民煩重之役 以盡其通變 而事未及就 甲辰七月感病 八月二十五日大棄群臣于 昌慶宮 之別殿 在位四年 春秋三十有七 德壽無徵 神理謬錯 嗚呼痛哉 我殿下攀號莫及 與小大臣 議王功德 謹上諡曰 德文翼武純仁宣孝 廟號曰 景宗 陵曰 懿陵 以是年十二月十六日乙酉 葬王于 楊州 冶南坐申向寅之原 卽新卜兆也 王妃 沈氏 贈領議政 青恩府院君 浩 之女 戊戌 以嬪薨 庚子追冊爲妃 繼妃 魚氏 領敦寧府事 咸原府院君 有龜 之女 嗚呼 王德宇渾厚 器度沈凝 在儲位三十一年 造詣已極高遠 而含晦章美 不見于外 處已應事 無大小無難易 渾然無聲跡之可尋 苟非深有得於涵養之工 何能及此 若不役志於外物 不嬰情於俗事 崇儉之德 懋實之政 在凡主固爲盛 於我大行 則尙其細者耳 嗚呼 惟我 肅宗大王 蚤夜憂勤 治定功成 躋一世於熙皞大猷之域者 殆五十年 此正平陂崇圯之會 而王以卓異之資 受精一之傳 善承謨烈 克紹志事 不言而教成 不動而化行 如風

之偃草 若雨之潤物 庶幾乎媲美 周成 康 軼 漢 文 景 而不弔于天 盛業未究 此一邦臣民所以抱窮天之哀 而懷沒世之思者也 嗚呼 王深知我殿下聰明仁孝 有君人之度 早定位號 以係民望 入則相與問寢視膳 歡侍長樂 出則鳳輦在前 鶴駕在後 都人士女 填咽街巷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 及至大漸之夕 自公卿百官 至輿僮下賤 莫不奔走悲號 如喪考妣 而其所恃而安然者 祇以元良豫建 神人有所托而然 在昔 宋 臣贊其君仁厚之德 以爲社稷長遠 終必賴之 今宗社有磐泰之安 寶祚綿億萬之期 使海隅含生 皆得以涵濡欣戴於仁化之初者 寔賴王光前垂後之盛烈洪休 夫豈仁厚一德所可倫擬也哉 嗚呼其盛矣 嗚呼其盛矣

議政府左議政 柳鳳輝 撰 行副司果 尹淳 書

5. 선의왕후의릉지

李宜顯, 《陶谷集》 卷8 應製錄 宣懿王后懿陵誌[庚戌]

上之六年庚戌六月二十九日丙寅 敬純王大妃 薨于慶德宮之魚藻堂 春秋二十有六 粵七日癸酉 有司用善聞周達溫柔聖善二法 上尊諡曰宣懿 上徽號曰孝仁惠穆 治方上於懿陵 厥既得卜 我殿下遂下御製行錄一通 命臣宜顯誌諸幽 臣辭不獲 拜手稽首 伏而讀之歎曰 我聖后至德 誠無間然 而聖筆昭回 記載該悉 臣何敢猥有摸畫 謹稽行錄 后姓魚氏 系出咸從 遠祖化仁始顯麗朝 國初 直提學變甲有恬退節 傳至判中樞文孝公孝瞻, 戶曹判書襄肅公世恭 仍父子以勲德顯 三世而左參贊季瑄 又顯於明宣朝 高祖漢明 水運判官 贈左參贊 曾祖震翼 江原道觀察使 贈左贊成 祖史衡 漢城府右尹 贈領議政 寔生領敦寧府事咸原府院君有龜 娶海美縣監李夏蕃

女 中宗大王六世孫也 追封完陽府夫人 以肅宗三十一年乙酉十月二十九日己未 誕后于漢師崇教坊私第 將誕 府夫人夢見日月並懸壁上 覺而異之后自幼端重 不妄遊戲 動止自中規度 罕言笑 喜慍不形 常衣弊服 見人華飾 略無歆羨色 性孝順 七歲遭府夫人喪 躬參祭奠 哀痛如成人 稍長 每追思出涕 雖最爲府院君所鍾愛 未嘗有嬌惰之容 戊戌 端懿王后 以世子嬪早世 肅宗爲景廟 極遴名家賢淑 后初入闕 年甫十四 遇疾風暴雨 而凝坐無少變 上大奇之 睿簡遂定 乃冊爲嬪 以九月十六日行嘉禮 后既膺冊命 承事兩殿 愉色婉容 一心敬畏 肅廟嘗執手教曰 予知汝賢 他日恃汝多矣 又教曰 聞汝曾王母壽考多祉 願汝似之也 后退語左右 至於泣下 洎大喪 哀慕盡制 答藥院曰 梓宮一閉 更覩天顏 那可得也 臣僚莫不感動 待女御 恩施普洽 見有早喪父母者 顧撫有加 蓋自傷其幼失慈顏而推及於下也 庚子 進位王妃 壬寅秋 備 禮冊封 甲辰 景宗昇遐 今殿下嗣位 后又進位王大妃 丙午喪制闋 羣臣上尊號曰敬純 當景廟違豫時 證候浹四旬彌留 后殫誠救護 夙宵焦遑 創鉅之初 哀毀踰禮 自殯至啓攢 雖當祁寒 不離哭位 遂嬰痼疾 閱歲沈淹 竟至於今日 其源盖有繇焉 后每值景廟不諱之月 自朔日不御常膳 平日所嗜 終身不以近口 景廟幼被仁顯聖母慈育 誠孝篤至 后常追慕德懿 事無大小 必問聖母時規制而後行之 景宗既入廟 以故臣閔鎮厚配佑 后以聖母同氣也 特賜迎諡之需 亦所以深體景廟眷待意也 后含章自晦 不作聰明 而顧愛好文學 在別宮 受小學於府院君 誦貫如素習 肅廟嘗使讀而聽之 亟賞音韻之清朗 平居喜觀古賢妃嘉言美行 使府院君膽進孝經禮書詩經中可法者 常置座右 朝夕省覽 今聖上命入室皇者 寔遵后遺旨也 后雅尚儉約 斥去奢靡 嘗曰 吾家是素門 兄弟皆士子婦 宮樣粧飾 非其分也 絕不賜與 惟軫念民隱 祔廟後上壽東朝 卽國朝故事 而后以歲歉人飢 謙讓不受 久乃勉從 輒減常供停方物 以示節損 及喪 以

遺教 出素儲衣 櫛 補諸須 除尙方例進匹段 祭器用甲辰遺餘 母令新造其務簡省恤經費之意 嗚呼至哉 始景廟葬楊州之懿陵 后聞其左有穴可扞 謂府院君曰 吾必以是爲歸 今定于同岡 盖聖上不敢孤后當日意也 於是乎神道人情 兩無憾矣 后葬爲申坐寅向 倣寧陵遺制 用上下穴 距本陵八十尺許 陵號仍舊不改 以十月十九日午時 下玄宮焉 先是端懿后與后俱無育 景廟爲宗社大計 冊聖上爲嗣 不逞之類 若疏若筍 首尾相銜 繼而逆臣一鏡 弼夢等 外結賊虎 內締妖豎逆婢 危 逼無不至 賴景廟友愛深摯 后扶翊甚勤 陰計終未售 逆鏡又以不忍聞之兇言 騰之教文 播諸八方 誑惑人心 甲辰大喪後 其徒又鼓煽醞釀 以成戊申之變 后益痛惋下教曰 世道若此 做出窮兇叵測之言 此非但誣當宁 實所以蠹先王 可勝痛哉 可勝痛哉 嗚呼 當日之事 后實躬扶起居 手調藥飲 自始至終 靡有遺憾 乃后所親當而深知者 此所以尤痛其架虛剋說 打破奸情 昭晰國誣者 而然苟非我聖后卓識淵鑑 度越千古 則亦何以明諭聖意 垂揭後世 若是哉 及至今夏 兇逆復起 情節益狼藉 則后又曰 此必戊申餘黨 豈料此賊至今如此 至有驚心痛骨之教 上方親鞠嚴覈 必期悉除兇孽 以慰慈心 而長秋遽隔 徽音永闕 此聖上彌所哀恨者也 嗚呼痛哉 臣謹就聖製 排纘如右 而仍又竊念我聖后詰範惠問 雖古彤史所載 殆無以過之 是宜受天保佑 享有菲祿 而顧自庚子以後十餘年間 國運罔極 喪變洵仍 后於是涕淚爲日 積哀成疾 以致壽筭之不永 天理之難諶 有如是夫 然而上念宗祔 危厲薰心 翼安聖嗣 潛銷禍萌 兩宮之間 和氣融翕 及夫亂逆之猖獗 又洞劈源委 辭嚴義正 其所以痛兩宮之受蠹 夫辨於一言之間者 尤明白截峻 有足以鎮羣情而戢兇圖 則自此世道之維持 邦基之鞏固 將有賴於斯矣 其懿德徽烈 有非區區文字所可形容其萬一者 此可以少慰臣民之至痛也歟 嗚呼盛哉

인릉(仁陵)

1. 연혁

능 주 : 순조[1790~1834]와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1789~1857]

위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4호

봉릉연대 : 1835년(헌종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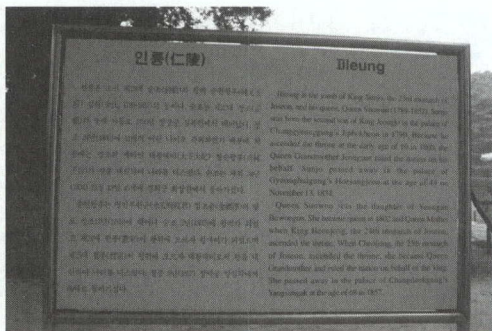
전릉연대 : 1856년(철종 7)

왕릉형태 : 쌍릉

2. 왕릉 소개

서울에서 송파대로를 따라 성남방면으로 가다가 복정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서초구 세곡동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현인릉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넓직한 주차장을 뒤로 하고 능역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순조의 무덤인 인릉을 만날 수 있다.

인릉은 23대 순조대왕(재위 1800~1834)과 순원왕후 김씨(1789~1857)의



인류 안내판

석(屏風石)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12간(間)의 난간석(欄干石)을 돌렸으며 능침 주위(陵寢 周圍)로 양석(羊石)과 마석(馬石) 각 2쌍을 교호 배치(交互 配置)하였고 능전(陵前)에는 상석(床石) 1좌와 그 좌우 양측(左右 兩側)에 망주석(望柱石) 1쌍을 세웠으며 그 밖으로 3면(面)의 곡장(曲牆)을 세웠다. 한 단 아래에 문인석(文人石)과 마석(馬石) 1쌍을 서로 마주보고 배치하고 중앙에 명등석(明燈石) 1좌를, 그 아래에 무인석(武人石)과 마석(馬石) 각 1쌍을 배치하였으며 상설(象設)은 단릉(單陵)의 형식이다. 문·무인석의 조각은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새겨져 섬세하고 아름답다. 능침 언덕 아래에 정자각(丁字閣)이 있으며 비각(碑閣)은 정자각 동쪽에 있고 비석(碑石) 2기가 있다. 구비(舊碑)는 비면(碑面)에 전서(篆書)로 조선국순조대왕인릉 순원왕후부좌(朝鮮國純祖大王仁陵 純元王后附左)라 썼고 음기(陰記)가 있으며 철종(哲宗) 8년(1857)에 세운 것이고, 신비(新碑)는 비면(碑面)에 전서(篆書)로 대한순조



이름 필경



인류 전경



인릉 정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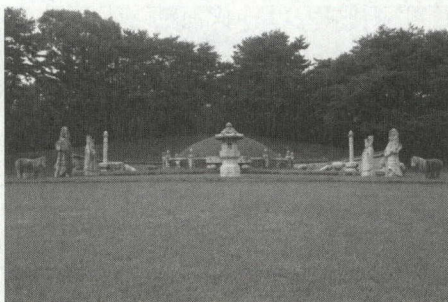
숙황제인릉 순원숙왕후부좌(大韓
純祖肅皇帝仁陵 純元肅王后附左)
라 쓰고 음기(陰記)가 있으며 광무
(光武) 4년(1900)에 세운 것이다.

정자각 남쪽에 참도가 시작되는
곳에 홍살문(紅箭門)이 있으며 홍살
문 남쪽에 재실(齋室)이 있다. 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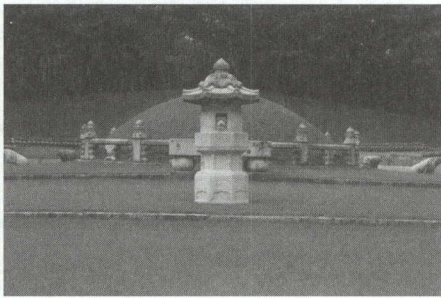
(齋室)은 능역(陵域)과 같은 국내(局內)에 있는 것인데 헌릉(獻陵) 인릉 재실
(仁陵 齋室)은 능역(陵域)과 서로 떨어져 있는 바 이 재실(齋室)도 당초에는
능역(陵域)과 한 국내(局內)에 있었으나 그 중간부분(中間部分)이 6.25 이후
인근주민(隣近住民)들에 의하여 농지로 개간(開墾)된 후 농지개혁법(農地改
革法)에 의하여 경작자(耕作者)에게 분배처분(分配處分)됨으로써 서로 떨어
지게 된 것이다.

3. 능주 소개

순조(純祖)는 정조(正祖)의 둘째
아들로서 정조 14년 (1790) 6월 18
일 창경궁 집복헌(集福軒)에서 태
어났다. 휘(諱)는 공(蚣)이고 자(字)
는 공보(公寶)이며 호(號)는 순재(純
齋)이다. 정조의 원자 문효세자(文
孝世子)가 정조 10년(1786) 일찍 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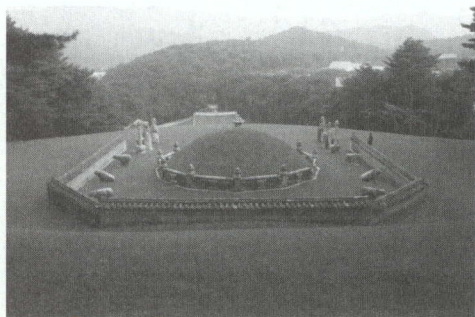
인릉 원경



인릉 전경

자 정조 24년(1800) 2월 2일 왕세자(王世子)로 책봉되었으며 사친(私親)은 가순궁 수빈 박씨(嘉順宮 綏嬪 朴氏)이다.

정조 24년(1800) 6월 28일 정조가 승하함에 이 해 7월 4일 창덕궁 인정문(昌德宮 仁政門)에서 즉위하였으나 춘추 11세였으며 대왕대비(大王大妃)인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 金氏)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고 순조(純祖) 4년(1804년) 철렴(撤簾)하였다.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의 수렴청정이 있으면서 천주교 대탄압(天主教 大彈壓)이 있었으니 신유사옥(辛酉邪獄)과 을해박해(乙亥迫害)로 천주교인이 많이 처형되었으며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勢道政治)는 순조대(純祖代)에 이르러 극성(極盛)하였으니 척신(戚臣)에 의한 전단(專斷)으로 과거제도문란(科擧制度紊亂),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성행하여 국가기강(國家紀綱)이 추락(墜落)하고 사회가 혼란하여진데다가 잦은 수재(水災)와 전염병의 창궐(猖獗)로 민생이 극도로 피폐하였으며 민란이 빈발하여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는 등 국정(國定)이 암담(暗澹)하였으나 호학(好學)의 주(主)였던 순조(純祖)는 《순재고(純齋高考)》를 친술(親述)하였으며, 《양현전심록(養賢傳心錄)》, 《동문휘고(同文彙考)》, 《대학류의(大學類義)》, 《서운관지(書雲觀志)》, 《정조



뒤에서 바라 본 인릉 전경

어정홍재전서(正祖御定弘齋全書)》를 간행하였다.

순조(純祖) 34년(1834) 11월 13일 경희궁(慶熙宮) 회상전(會祥殿)에서 승하하니 재위 34년이고 춘추 45세였다. 헌종(憲宗) 즉위년(1834) 11월 19일 능포(陵號)를 인릉(仁陵)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순종(純宗)이라 하였다가 광무(光武) 3년(1899) 12월 19일 순조(純祖)로 고치고 제호(帝號)를 숙황제(肅皇帝)로 추상(追上)하였다. 헌종(憲宗) 원년(1835) 4월 19일 경기도 교하군 인조의 장릉 좌측(長陵 左側) 산줄기 을좌신향(乙坐辛向)(동에서 서향) 언덕에 예장(禮葬)하였다. 능지불길론(陵地不吉論)으로 철종(哲宗) 7년(1856) 10월 11일 헌릉 우강(獻陵 右岡)의 자좌오향(子坐午向 ; 정북에서 정남향) 언덕에 전릉(遷陵)하였다.

한편 순조(純祖)의 비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金氏)는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영돈녕부사 영안부원군 김조순(金祖淳)의 딸로 정조 13년(1789) 5월 15일 한성부 서부 양생방(養生坊) 사제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청양부부인(靑陽府夫人) 심씨(沈氏)다.

순조(純祖) 2년(1802) 10월 13일 왕비로 책봉되고 헌종 즉위년(1834) 11월 18일王大妃(王大妃)로 봉하여졌고 이튿날인 19일 헌종(憲宗)의 부(父)이며 순조(純祖)의 원자(元子)였던 효명세자(孝明世子)가 문조(文祖)로 추존(追尊)됨에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진호(進號)되었다.

순원왕후(純元王后)는 헌종(憲宗), 즉위년부터 수렴청정을 하다가 헌종이 후사없이 헌종 15년(1849) 6월 6일 승하함에 장조(莊祖)의 손이며 은언군(恩彦君) 인의 아들인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의 셋째 아들로 하여금 대통(大統)을 잇게 하였으니 바로 철종(哲宗)이다. 철종이 즉위함에 다시 수렴청정을 하였으며 철종 2년(1851) 12월 28일 철렴(撤簾)하였다. 철종 8년(1857) 8월 4일 창덕궁(昌德宮) 양심각(養心閣)에서 승하하니 춘추 69세였다. 이 해 8월

10일 시호(諡號)를 순원(純元)이라 하고 능호를 문릉(文陵)으로 정하였다가 인릉(仁陵)에 합장하기로 함에 따라 새 능호는 쓰지 아니하였다. 이 해 12월 17일 순조 인릉에 합장하였으며 광무(光武) 3년(1899) 12월 19일 시호(諡號)를 숙황후(肅皇后)로 추상(追上)하였다.

4. 인릉표석음기

遷陵碑文

純宗淵德顯道景仁純禧體聖凝命欽光錫慶繼天配極隆元敦休文安武靖憲敬成孝大王 崇禎 紀元後一百六十三年庚戌六月十八日 誕生 庚申二月冊封王世子 是年七月卽位 甲午十一月十三日昇遐 乙未四月十九日葬于交河 舊治後乙坐原 在位三十四年 壽四十五 憲宗十四年戊申 追上尊號體聖凝命欽光錫慶 今上四年癸丑 追上尊號 繼天配極隆元敦休 丙辰十月十一日 遷奉于廣州獻陵右岡子坐之原 【領中樞府事 鄭元容 製】

5. 인릉지

《純祖實錄》附錄

惟我 淵德顯道景仁純禧大王 在宥三十四年 久道化成 百寮奉職 各守其位 萬姓樂業 各安其生 以至跼喙肖螟 蠢動含氣之倫 無不各得其所 仁聲仁聞 洋溢八域 臣民不祿 以甲午十一月初六日 有疾不豫 十三日甲戌

禮陟于 慶熙宮 之 會祥殿 春秋四十有五 近自王宮國都 遠而深山窮谷 莫不悲號哭踊 如喪之慟 無間中外 苟非盛德至善入人之深 何以致此 嗚呼 盛矣 嗚呼 慟矣 大臣率百官 謹上尊諡曰 文安武靖憲敬成孝 廟號曰 純宗 以乙未四月十九日戊申 大葬于 交河之仁陵 坐乙原 禮也 今上殿下 命臣以幽宮之誌 臣忉恐戰越 惟懼不稱 敢撰次如左 謹按王姓李氏 諱 玠 字 公寶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之子 母妃 睿敬慈粹孝懿王后金氏 清原府院君 靖翼公 時默 女也 綏賓朴氏 是實生王 而 孝懿后 以 正宗 命 取而子之 定號元子 綏嬪 贈領議政 忠獻公 準源之女也 先是 文孝世子 卒 正宗 深以儲嗣爲憂 及己酉秋 宮人夢飛龍之祥 既而 綏嬪 有娠 視瞻清炯 神彩異常 宮中上下 皆以爲大慶之兆 庚戌六月十八日 王誕生 彩虹亘于廟井 神光繞於宮林 正廟 就而視之曰 是兒福祿 非吾所及也 王自在孩提 聰明絕人 甫二歲冬至 正廟 賜以新曆 蓋喜王之將添齡也 王時自抱中 受而披覽 仍拈書屏上同文而指之 左右莫不聳異 稍長 益敬畏 父王 雖尋常娛嬉之事 父王所不欲爲 卽不敢爲 未嘗違拂 事殿宮無間然而於 孝懿后 敬愛尤著 正廟 亟稱之 庚申春 冊封王世子 行冠禮 六月 正宗 昇遐 王沖齡嗣服 諒闇之制 已如成人 群臣之進見者 語及先王 必 泫然流涕 失聲掩抑 國人服其至孝焉 時 貞純后 垂簾同聽政 事無大小 王一皆稟決 罔敢或專也 初 正廟 之在春邸也 戚臣 金龜柱 之從叔 漢祿者 爲 龜柱 陰募死黨 將謀危國本 引 胡寅 論 唐 中宗 時事 其言絕悖 正廟 雖燭其逆節 以事關聖躬 貸而不問 及王新遭大喪 主勢孤危 群凶餘孽 乘時益張 脅持壅蔽 至賊臣 權裕 之疏 而其計又欲沮敗 先王已定之大婚 老臣忠愛之語 發於前席 三揀不爲之說 行於一世 禍將滔天 聞者寒心 賴 貞純后 聖明 炳幾折奸 力扶大綱 遂以壬戌冬 行嘉禮 宗社得以復安 自王之親總萬幾 嚴淑慝而辨忠逆 甲子首施 裕 逆律 營護凶賊 目無

君母者 舉國之罪人也 追削 沈煥之 官爵 公肆矯誣 忝間兩宮者 慈聖之罪人也 竄 洪在敏 于海島 干犯先王義理 凌逼莫嚴者 三朝之罪人也 賜金達淳 死爲奸凶窩主 上下四五十年 本乎 龜祿之凶圖 接以 煥裕之逆案 陷一世於夷狄禽獸之域者 金鍾秀 爲之魁 實萬世之罪人也 丁卯 追施逆律 黜庭享 龜柱漢祿 竝與其徒黨支屬 各以其罪罪之 於是乎天討大行 國是乃定 有所謂西洋學者 自北而來 黷倫敗教 流染傳習 人多註誤 遂亟施誅 鋤闢之廓如 此乃王衛道斥邪之大政 而 龜祿之徒藉其事 構殺 惠慶宮之弟 洪樂任 竝及廢宗 裊 裊之妻與其子 湛之妻 非王之意也 後王 卒復洪樂任 官 出 裊之諸子女于島 爲之置第而嫁娶之 王以冲年失怙 至慟在心 奉 貞純后孝懿后惠慶宮極容色之愛 盡志物之養 洞屬如不及 定省以時 寒暑無曠 有故輒使內豎問起居 見其還然後乃安也 己巳 王世子生陳賀于殿宮 因相臣建白 進號 綏嬪 爲邸下尊奉 視 惠慶宮 儀節 乙亥 惠慶宮 薨逝 廷臣多以服制爲疑 王 追惟所生 博採古禮 定爲大功之制而服之 辛巳 孝懿后 上賓 王哀慕如庚申 因領敦寧府事 金祖淳 言 移奉 健陵 而合祔焉 壬午 綏嬪 卒逝 王 用大臣諸臣議 服緦麻三月 旣除 御素衣冠以終三年也 王 事天奉先 尤致敬謹 所御寢室 雖暑必令閉戶 未敢對天而臥 語及日月風雨 必致尊而無慢 迅雷肅然 改容必整襟拱手坐而待止 凡大小災異 飭中外無得諱而不聞 輒求助而消弭之 宗廟享祀 必躬將潔粢盛眡滌漑 憧憧粥粥也 春秋 必祗謁寢園 歲以爲常 有自燕肆購 皇清通考而來 所載本朝辛丑四大臣事 誣巖不忍言 王大驚惑 亟遣使辨正刊去誣奏句語 使還 告于廟 國制 舊有宮寺臧獲 籍于案 而世其貢爲民切骨之冤 或以先王遺意爲言 王 卽命火其券 撤壯營之巨費 以還大農 減藥院之別供 俾紓諸道 癸亥夏關西關北災 冬 江華 饑 出內府之藏 停本道之入 己巳兩湖大饑 命道臣 蠲欠逋寬租賦 辛巳沴厲大熾 死亡相續 而關西尤甚

遣近臣禳于境內 壬辰 大水 特行疏決 宥者屢十百人 自是 凡大侵之年 極備之災 輒宵旰憂勤 曲加優恤 盛暑祁寒 必出滯囚 軫凍餒 至于末年 未嘗或廢 辛未關西土寇起 殺長吏 陷七郡 王 遣兵討誅之 官吏之死事者 旌褒而錄其孤 民人之誘脅者 肆赦而復其業 飭守令勞徠安集 不朞年而民 忘其亂 王 愼惜名器 一切官職 罔或濫授 而尤敬禮大臣 每當甌卜 必整 衣冠端坐 而書其姓名 其晉接也 雖甚病 不以褻服對之 禮貌必謹也 丁亥 命王世子代理軍國大事 自決之 遵國朝故事也 是秋 世子上王尊號 淵德 顯道景仁純禧 王妃尊號 明敬 庚寅 世子薨 冊元孫爲王世孫 王 勉抑至 情 復親機務 而壬辰 兩公主又相繼夭逝 王雖不以疚感 見於色 榮衛內鑠 恒忽忽如無樂 竟以无妄 大棄群臣 天乎 慟哉 以王大德 必得其報 而壽 止中身 理難諶斯 然聲教被於當時 光烈垂於後世 親賢樂利 生榮死哀 於 戲 不忘之思 將與天壤而俱已 又何盛也 廷臣議王功德 宜百世祀 遂尊爲 世室焉 王妃 金氏 籍 安東 永安府院君 忠文公 祖淳 之女 誕二男三女 男長 孝明世子 今上卽位 追尊爲 翼宗大王 次夭逝 女長 明溫公主 下嫁 東寧尉 金賢根 次 福溫公主 下嫁 昌寧尉 金炳疇 俱蚤卒無育 次 德溫 公主 未笄 淑儀 朴氏 生 永溫翁主 亦夭 翼宗 妃 趙氏 豐恩府院君 萬 永 女 誕今上殿下 王姿表特異 廣顙隆準 方口重頤 龍顏渥丹 體相豐偉 望之儼然有威而可畏也 卽之藹然有德而可親也 天性孝友 恭儉敦重 仁恕 不以事物經心 燕居常終日危坐 罕與人接 耽蹟墳典 於書無所不覽 過目 輒記 以至典章儀文 無不默識而該貫 奎藻宸翰 皆臻其妙 而退然不以自 居 專意經傳 心究體驗 務求實用 故王之學 一以誠信爲本 不喜赫赫之譽 矯矯之行 而三紀之間 治化熙洽 民受其賜者 實基於此 中年 惟 綏嬪 在 世 王事之采謹 必先意順志 曲盡其歡 綏嬪 每致膳於王 雖適不欲 必下 箸嘗之 雖數亦然 綏嬪 嘗處 養心閣 爲其近於王所 及卒 王每獨立凝望

玉色淒然 若有所覲而不得也 當食輒停箸不御曰‘食不下咽’聞者爲之感動泣下 淑善主 王之妹也 撫愛尤篤 其下嫁也 在外邸三日 王 大以爲恨 其還也 迎勞如遠別 及出閣 以不得源源相見爲恨 問遺無闕日 所言必從 所求必副 聞其入宮 必指期而待 喜見於色 觀者感服 素不喜芬華 自奉甚淡泊 服御無錦綺之飾 盤膳絕奇袞之品 布帛之文 菽粟之味 處之晏如 玩好之物 悉屏去不留日 用此何爲 徒喪人心志耳 宮室之狹陋者 未嘗拓而新之曰 不過容膝 何用侈大爲也 至於櫛衾帷帳之屬 皆令澣濯而補綴之 宮中嘗進一半臂紋緞也 王 笑曰 此果好乎 受而御之 經宿卽解而不復進也 臨朝淵默 儀容肅穆 群下不敢仰視 及其對人而接物也 溫粹謙和 無滿假矜莊之色 朝臣進言 必虛懷聽納 善則取之 用之 不善則舍之 未或以聲色威罰 加諸倉卒 故人莫不輸其衷誠 尤重民事 周知稼穡之艱難 故每御常膳 必貌而對 有遺粒則必命拾取曰 民之所以爲天者 豈可忽也 常曰 財賦出於民 以奉上不可以私意 濫費府庫之積 將以有待也 又不可以當而不出 故終王之世 絕營作慎賜與 勸課農桑 愛養民力 而遇有水旱盜賊饑饉癘疫 輒蠲蕩賑貸 傾帑而不惜也 約以持身 寬以御下 不遷怒不貳過 舍已取人 從善如流 未嘗以作爲害事 故教告簡易而易知 政令純一而無雜 迄于季年 朝野寧謐 用心至仁 雖蟲豸之微 惟恐其或傷 見人有老者 雖卑必優視之 又以爲刑辟者 人之死生係焉 欽恤哀矜 出於至誠 未有無辜而橫罹者也 竊嘗論之 自古懿君哲辟 代不絕書 而不雜乎王霸 不眩於利義者 蓋鮮矣 惟我大行大王 以天縱之姿 接前聖之統 治法政謨 粹然一出於正 堯 舜 之則大無爲 巍蕩難名 禹湯之克勤克儉 不邇不殖 文武之之德之純 善繼善述 王實兼有之而不與焉 嗚呼 其至矣 傳曰 君子之道 本諸身 徵諸庶民 考諸三王而不繆 王之謂乎 臣以肺腑之餘蔭 托日月之末光 親炙薰陶 二十餘年 其得於耳目者 固難殫述 而今於狀德之文 華而不實

溢而不衷 則不但後世之無以徵信 抑亦有違於平日謙光之至德 謹撮其大概 寧約無濫云 爾 【弘文館提學 金迫根 製】

6. 천릉지문

《純祖實錄》附錄

今上六年 議 仁陵 舉下禮 始命遍相畿甸近遠 既又上躬審西至于 禧陵 東北 至于 光陵 之 達摩洞 而粵明年丙辰 至于 獻陵 卜得吉於右岡子坐原 十月四日戊子 啓戟塗 十一日乙未 克襄惟儀 幽誌用舊貫 命只錄甲午以後事實 以附識之 遵 寧陵 古事也 嗚呼 今距登遐二十有三年矣 而百官三軍 萬黎獻於戲不忘之思 如一日焉 厥衛戒壙 復臨灤水之朝 小大號遑 若喪之初 仁心仁聞 入人之深者 是豈可襲而取哉 昔在辛酉 金龜柱漢祿之黨 謂王冲辟 竊政枋構 恩彥君 之禍 至又誣奏彼中 及壬午 莊獻世子 薨逝 舊甲之回也 王 謁于寢園 下旨全釋一家之在沁都者 而辭旨惻怛 讀者無不流涕 己酉 憲宗 薨無嗣 今上殿下 以 恩彥君 之孫 全溪大院君之第三子 入承大統 寔 莊獻世子 曾孫 英宗大王 血禪也 豈非天哉 而今上庚戌 專价卞晰 辛酉誣奏得準 此前誌所未及載 謹述之如此 朱子 曰 事皆合義 自反常直 周子 曰 性焉安焉之謂 聖莫知其然之謂神 是謂大順而大化也 況放勛時雍 自以親既睦而權輿之者乎 嗚呼 王於此 其兼總而條貫之矣 誕二男三女 德溫公主 以甲午後 下嫁 南寧尉尹宜善 早卒無育 憲宗 戊申 追上尊號曰 體聖疑命欽光錫慶 今上癸丑 追上尊號曰 繼天配極隆元敦休 憲宗 初聘 金氏 領敦寧 永興府院君 祖根 女 再聘 洪氏 領敦寧 益豐府院君 在龍 女 今上聘 金氏 領敦寧 永恩府院君 汶根 女 【判中樞府事 金左根 製】